소년단

1962.1

공산수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2년 1호 내용

평양시 내 어린이들의 설맞이 모임을 축하하는
김 일성 원수님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여섯 형제들의 자랑

새해 설날 아침이였어요.

1962년 새해 네 집에는 여섯 형제들로 불리우는 알곡 고지, 직물 고지, 수산물 고지, 주택 고지, 강철 고지, 석탄 고지들이 모여 줄거운 설놀이들이 버려졌어요.

그들은 모두 신이 나서 손에 손을 맞잡고 두리둥실 춤을 추며 돌아 갔지요. 어찌 안 기쁘겠어요.

지금 당과 전체 인민들이 자기들을 꽃피우기 위해 한결 같이 일떠 섰다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춤을 추고 돌아가던 고지들은 흥에 겨워 모두 둘러 앉아 한바탕 제 자랑들을 늘어 놓았지요.

지난 해 100만 톤 증산으로 살이 피둥피둥진 알곡 고지가 먼저 자랑을 늘어 놓았어요.

《말할 게 있나 뭐니 뭐니해도 내가 살이 져야 인민들의 생활도 더욱 넉넉 해지구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가 잘 펴워 나갈 수 있거든, 그러기 보란 말야 지금 온 나라가 나를 살 지우기 위해 떨쳐 나선걸, 기계 공장 로동자들은 올해에도 농촌에 더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만들어 보내기에 나섰구 흥남이나 순천 화학 비료 공장에서는 올해 농사철 전으로 70만 톤의 비료를 만들어 보낸단 말이야, 그 뿐이겠나 올 여름부터는 우리 곡식들이 그 몹쓸 잡초들의 성화도 받지 않게 됐거던, 본궁에서 만든 살초제 약만 뿌리면 사람들이 김을 매 주지 않아도 잡초들은 꼼짝을 못할 테니까, 게다가 지금 농민들이 새 땅을 더 늘쿠구 자급 비료도 많이 생산하고 있단 말이지, 아 임자네들 보지 못했나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까지 눈 우에 발구를 몰고 다니는 걸 말일세. 그러니 올해 알곡 500만 톤이야 문제 없지 문제 없어!》

어찌나 신이 나서 단숨에 엮어 내리는지 어안이 벙벙해서 알곡 고지를 쳐다 보고 앉았던 다른 고지들은 그제야 어이가 없다는듯이 모두 입맛을 쩝쩝 다시였습니다.

《허 제 자랑에 코 깨지겠는걸. 자랑 꺼린 혼자만 있는 줄 아는 모양이군그래. 하기야 알곡 고지가 자랑을 하게 됐지. 지난 해만 해도 483만 톤으로 살이 졌으니 올해 500만 톤이야 여부가 있겠나. 지금 숙천, 평원, 안악, 신천군을 비롯해서 알곡 10만톤 군 창조 운동에 나선 군들만도 20개구 5만 톤 군, 3 만톤 군 창조 운동에 모든 군들이 나섰으니까 말이지.》

새 해 아저씨가 껄껄 웃으며 말하였지요. 그러자 직물 고지가 동무들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는 게 없이야 어떻게 사나, 그러기 지금 당과 정부에서는 올해 인민들에게 아름답고 질긴 옷감이 한 사람 앞에 25 메터씩 차례지게 하자는 게거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멋 있는 비날론 양복, 녀자들에게는 폭신폭신 나일론 쉐타, 정말 남부럽잖게 입고 다니게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어때요. 나도 좀 자랑할만 하지요?》

마치 동정이나 구하듯 새 해 아저씨를 쳐다보며 직물 고지가 말했지요.

《암 자랑할만 하구 말구, 비단 고지로 말하면야 당당히 자랑할만 하지. 아 작년에 세계 일등 급의 비날론 공장이 세워져서 올해는 1만 톤의 비날론이 쏟아져 나올 게구, 또 신의주와 청진 화학 섬유 공장들에서도 스프와 인견사가 콸콸 쏟아져 나올 게구, 그런데다 올해 또 혜산 아마 방직 공장과 원산 방직 공장이 새로 서게 될테니 직물 2억 5천만 메터야 문제가 없게 됐지.》

《아저씨 그 뿐이나요? 올해에는 지방에 있는 직물 공장들도 모두 기계화되고 해서 더 많은 천을 짜 내게 되잖아요.》

《옳지 옳지 그렇구 말구.》

직물 고지가 덧붙여 하는 말에 새해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그래도 알곡 고지는 조금도 움추려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알곡 고지 옆에 쭈그리고 앉았던 수산물 고지가 빨간 눈을 대룩대룩 굴리며 동무들을 둘러 보더니 한몫 끼여 들었지요.

《쌀도 많아야 하고 옷감도 많아야 하지만 반찬이 없이야 밥상에 둘러 앉을 맛이 있나요.》

생김생김이 날씬한 데 비해 제법 웅글은 목소리를 내는 수산물 고지의 말에 모두들 옳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신이 난 수산물 고지는 으시대며 자랑을 늘어 놨어요.

《모두들 우리 바다엘 한번 와 보란말야,

수평선 아득한 바다 우에 창파를 가르며 나아가는 고기'배들을 말이지. 그렇다고 뭐 그 전처럼 돛을 단 배들인 줄 알어. 그런건 이젠 빛을 감춘지 오래구, 모두 기계'배들이란 말야, 〈바다의 공장〉이라 불리는 가공 모선이 두둥실 떠서 크고 작은 배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나가는 모습은 볼만하지. 그래서 먼 바다로 달아나는 고기는 따라 나가 잡고 들어 오는 고기는 맞받아 나가 잡거든. 고기를 찾아 내는 데도 이제는 모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단 말야, 고기'배들에는 모두 어군 탐지기, 무선 통신기들이 있거든, 그러니 고기 잡이도 신이 나게 됐지.

게다가 담수 양어는 물론이구 미역이나 김, 양식 같은 것도 더 많이 해서 올해 80만 톤의 수산물이야 문제가 없단 말이지.》

수산물 고지의 말이 끝나자 새 해 아저씨가 시물시물 웃으며 말했지요.

《수산물 고지는 덤비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덤비다 보니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군, 고기'배들의 부속품을 제때에 마련하구 고기'배들이 고장이 나지 않게 하구 해서 1 년에 300 일 이상 바다에 나가는 거 말이야. 올해도 어로공들이 모두 결의해 나섰거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 속담에 산에 가야 범을 잡는다구 바다엘 많이 나가야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게 아닌가, 그렇지?》

《그 옳은 말씀이웨다.》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주택 고지가 입을 열었지요.

《난 원래 자랑이란 할 줄 모르는 성미지만 뭐니 뭐니해도 쓰고 살 집이 훌륭해야 할 게 아니요?》 제법 시치미를 떼듯 말했지만 그러나 속심은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했어요.

《자 보란 말이야 올해 우리는 도시에 10만 세대, 농촌에 10만 동 모두 해서 20만 세대가 일어 선단 말이야. 도시로 말하면 민주 수도 평양에만도 2만 1천 세대가 일어 서게 되니 수도의 모습이 또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농촌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조상들이 언제 한 평생 오막살이 신세를 면해 본 일이 있었는가 말야. 당과 정부에서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 각각 60만 세대의 집을 짓자고 하거든 지금 농촌에다는 매 군마다에 건설대를 조직하구 지방에 있는 원료와 자재로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문화 주택을 짓게 했거든. 그러니 농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좋아지겠는가 말야!》

여태까지 아무 말 없이 다른 고지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던 강철 고지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듯이 입을 비죽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모두들 자랑이 그게 단가? 글쎄 너희들이 아무리 제 자랑을 늘어 놓아도 내가 없이는 안 될걸, 강철이 많아야 뜨락또르도, 자동차도, 방직기와 배도 만들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지 않는가 말이지. 그러기 지금 광산들에서는 철광석을 많이 캐 보내고 제철소 제강소들에서는 있는 설비를 잘 리용하구 그의 능력을 더욱 높인단 말이야, 올해 5. 1절까지 황철에서는 40만

톤의 능력을 가진 분괴 압연 직장이 새로 생기게 되고 강선에서는 인발관 직장이 새로 선단 말이야, 그리고 이미 성진 제강소에는 신중판 직장, 남포 제련소에는 유색 금속 압연 직장이 준공되였으니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강재는 무엇이던 마음대로 만들어 쓸 수 있게됐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기계 공장들에서는 더 많은 뜨락또르, 자동차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방직 기계, 고기'배, 광산 기계들을 만들어 내여 자네들에게 보내게 될 걸세. 그러니 공업의 왕이 한 마디 할 만 하잖나!》

강철 고지가 하는 말에 옆에 있던 석탄 고지도 검은 얼굴에 흰 눈알을 휘번득이며 입을 열었지요.

《강철 고지의 말도 옳다. 그렇지만 난 공업의 빵이란 말야. 내가 없이는 공업의 왕인 철도 어림 없지, 용광로에서 쇠도 녹이고, 기차도 움직이는 건 나거든 나야, 사람들이 쓰는 비누'갑, 치솔'대, 케스, 만년필, 안경테, 염화 비닐 비옷, 의혁 구두, 가방, 비날론, 양복들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석회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란 말일세. 그러기 사람들은 나를〈검은 금〉이라고 하거든, 그래 금년에 나를 1,500만 톤이나 캐 내게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 지금 굴진을 앞세우면서 매장량이 많은 고건원, 고참, 고원, 안주, 룡등 탄광들과 신창 탄광 같은 데 힘을 기울이게 되거든. 그리고 채탄과 운반은 모두 기계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 1,500만 톤이야 문제 없지.》

모두들 제가 제일이라고 자랑을 늘어 놓은 그들은 마지막으로 결론이나 바라듯 새 해 아저씨의 얼굴을 바라 보았습니다. 이윽고 아저씨가 입을 열었지요.

《이야기들이 다 옳아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자는 당의 뜻을 받들고 자기 앞에 나선 일이 문제 없이 완수되리라는 자신들을 말하였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전체가 힘을 합해 나가는 걸세,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당과 전체 인민들은 올해 임자네들 여섯개 고지를 단숨에 점령해서 7 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의 과업인 인민들의 생활을 부쩍 올리자는 걸세. 그래 지금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절약하고 증산해서 자네들을 살 지우기 위해 나섰지. 보라구 지금 소년단원 꼬마들까지도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나섰단 말일세 공부도 잘 하고 《꼬마 7개년 계획》활동도 더 잘하고 말이지.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네들을 더 살 지워 이제 7 개년 계획 말에 가면 알곡 고지는 600만~700만 톤 수준으로 살 지게 할 것이고 직물은 5억 메터, 수산물은 120만 톤, 주택은 도시와 농촌에 각각 60만 세대, 강철은 230만 톤, 석탄은 2,500만톤 수준으로 높이자는 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자만해서는 안돼, 더 높은 고지가 돼서 사람들의 살림을 꽃 피우기 위해 함께 손 잡고 나가세. 그러자면 올해가 아주 중요한 해일세, 나와 함께 손잡고 더 높은 고지가 되기 위해 힘차게 나가세!》

새해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 모두들 《옳습니다. 나갑시다 ! 억세게 나갑시다.》 하며 손'벽을 치며 일어나 다시 두리둥실 춤을 추며 돌아 갔습니다.

동무들은 행복해요

류 명옥

소년단원 동무들!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첫 전투가 시작되는 1962년의 새 날이 밝았습니다.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면 우리들에게는 또 얼마나 큰 기쁨과 자랑이 안겨 오겠습니까!

나는 금년 설에도 붉은 넥타이를 단정스럽게 맨 소년단원들의 손에 이끌리여 설맞이 모임에 참가하였습니다.

설맞이 모임에는 우리의 어버이신 김 일성 원수님도 오시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춤 추며 노래 부르는 동무들의 얼굴마다에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기쁨과 행복이 어려 있었습니다.

만면에 웃음 지으신 김 일성 원수님이 아름다운 붉은 꽃송이로 피여 날 소년단원들의 새 해를 축하하여 줄 때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아동단에서 자라났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은 항상 우리 아동단원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놈들과 싸워 승리하고 놈들에게 학살당한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기 위해서는 항상 꾸준히 배우며 아동단의 규률을 잘 지키며 조직 생활에 잘 참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아동단의 규률을 훌륭히 지키였고 유격대 아저씨들을 도와 보초도 섰고 통신 련락 임무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특히 설 날이 올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동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동단 분대(나는 분대장이였습니다.)에는 리 영복이란 동무가 있었습니다.

영복 동무는 항상 누구보다 동무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고 동무를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동단에서 주는 위임이라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마는 훌륭한 동무였습니다.

아침 조기 체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아동단원들은 참으로 규률 있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대에 있는 일룡이라고 하는 동무는 늘 침울해 지냈고 때로는 규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룡이가 규률을 잘 지키지 못한 데는 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룡이네 집은 형님이 유격대에 입대하고 늙은 부모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룡이가 아침 저녁 부모들의 일'손을 도와야 했던 것입니다.

일룡이가 아동단의 규률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영복이였습니다. 영복이는 매일 아침 저녁 일룡이네 집에 가서 물도 긷고 나무도 패 주며 일룡이의 일'손

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룡의 학습을 위해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베여다 톱으로 켜서는 책상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설 날을 이틀 앞둔 날 아침이였습니다. 나와 영복이는 아동단 지도자 혼근 아저씨가 주는 급한 통신 쪽지를 가지고 40리나 떨어진 삼인툰으로 련락을 떠나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마을 어구를 나설 때였습니다. 왜놈들의 개 노릇을 하는 최 성삼이란 앞잡이 놈이 불쑥 나타나서 우리의 멱살을 틀어 쥐더니 나의 저고리 동정을 다짜고짜로 뜯어 내며 비밀 쪽지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 쪽지는 영복이의 오금 매기에 있었으니 안심이 되였습니다. 앞잡이 놈을 묘하게 속여 넘긴 우리들은 눈보라 속을 헤치며 80리' 길을 단숨에 걸었습니다.

영복이와 나의 발은 얼어서 바가지를 엎어 놓은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 쪽지를 어김 없이 빨리 전하는 일이 곧 왜놈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은 우리들은 아픔을 참아 가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우리는 아동단에서 받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 날 밤이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설날을 맞으며 갑작스레 할 일이 나섰습니다. 그것은 설 날에 인민들을 모아 놓고 왜놈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노래와 춤, 연극을 조직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노래와 춤은 갑작스레도 준비할 수 있었지만 연극만은 그렇게 갑작스레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연극을 잘 꾸밀 줄 아는 영복이가 낮에 언 발로 하여 자리에 누웠으니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곤난 앞에 굴할 줄 모르는 영복이는 밤중으로 꼭 연극을 꾸며 내겠다고 자리에서 일어 났습니다.

이 날 밤 영복이는 옹기 그릇에 찬물을 떠다 두 발을 잠그고 아픔을 참아 가며 연극을 꾸며 냈던 것입니다.

며칠 지나 영복의 열 발톱은 다 빠지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은 것은 오직 조직이 주는 위임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김 일성 장군님의 참된 어린 전사인 아동단원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후 영복이는 유격대에 입대하여 왜놈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아동단원이였던 그의 높은 뜻은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 앞에는 6 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여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해에도 동무들은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처럼 규률을 잘 지켜 동무를 돕고 사랑하며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여 김 일성 원수님의 나 어린 붉은 전사로 씩씩하게 자라십시오.

—항일 빨찌산 참가자 박 영순 동지의 회상기에서—

1) 1936년 초에 있은 일이다. 부대에서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당시 병기 수리소 책임자이던 박 영순 아저씨에게 20 개의 연길 폭탄을 4 일 동안에 만들라는 어려운 과업이 내리였다. 처창즈 동남차에 있는 진대나무 숲 속에 감추어 두었던 작탄 재료를 찾아 한 짐씩 잔뜩 걸머지고 아저씨는 강 남송 아저씨와 함께 야장'간이 있는 왕바버즈를 향해 떠났다.

2) 무거운 짐을 진 데다 아저씨들은 도중에 그만 허기증을 만났다. 게다가 박 영순 아저씨는 공교롭게도 갑자기 몸에 열이 나서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다.

조금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뒤따라 오던 강 남송 아저씨는 이것을 곧 알아 차리고 자기 짐도 무거운 데다 배낭을 빼앗아 메였다.

박 영순 아저씨는 도로 빼앗으려고 했으나 그것은 허사였다.

3) 령을 넘어 가던 도중 타버린 자위대 초막 자리에서 강 남송 아저씨는 타다 남은 한 줌의 겉조를 얻어 냈다. 아저씨들은 조를 돌에 문질러 죽을 쑤어 겨우 요기를 했다. 그러자 박 영순 아저씨는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장질부사에 걸려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폭탄을 기어코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 박 영순 아저씨는 다시 일어 났다. 강 남송 아저씨는 박 영순 아저씨를 부축하여 다시 길을 걸었다.

4) 갖은 고생 끝에 드디여 목적지인 왕바버즈에 다달았다. 그런데 박 영순 아저씨의 열은 분마다 시간마다 더 해갔다. 남은 기일이란 이틀 밖에 없었다.

강 남송 아저씨는 박 영순 아저씨에게 누어서 시키게만 하고 양철판을 자르거나 메질을 하는 힘든 일을 도맡아 하였다. 굳이 말렸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박 영순 아저씨는 앉아 시키면서 폭약을 넣고 폭탄을 조립하는 일을 하였다.

5) 이렇게 이틀을 꼬박 새우고 사흘째 되는 날 박 영순 아저씨는 그만 만들던 폭약 함을 쥔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강 남송 아저씨는 박 영순 아저씨를 극진히 간호하면서 그가 하던 방법 대로 남은 폭약을 혼자서 다 만들어 보냈다.

며칠 동안 정신 잃고 신음하던 박 영순 아저씨가 꿈결에 《어머니!》를 찾으며 눈을 떴을 때 곁에서 애타게 손목을 쥐고 앉았던 강 남송 아저씨는 《살았구나》하고 소리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6) 그 날부터 열이 조금씩 내려 가기 시작하자 박 영순 아저씨는 자꾸만 물을 찾았다. 근방에는 도랑 물도 없었다. 그러나 강 남송 아저씨는 눈을 녹여 끓인 물을 천으로 밭아 드리군 하였다. 한 고뿌의 물을 얻는데도 열 식기의 눈을 녹여야 했다.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했다.

이렇게 강 남송 아저씨는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7) 며칠 후 이곳을 찾아 온 부대 통신원은 박 영순 아저씨를 후방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 갔다.

따뜻한 온돌 방에 누워 땀을 푹 흘리고 난 박 영순 아저씨는 찬물을 더 애 타게 찾았다. 나중에는 짜증까지 내였다.

그러나 찬물은 병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강 남송 아저씨는 그 때마다 끓인 물이 아니면 미음을 드리군 하였다.

8) 몹씨 추운 어느 날 부락에 적들이 불의에 기여 들었다. 아저씨들은 인민들의 도움으로 부락을 빠져 나왔다. 날씨가 어찌나 추웠는지 땀이 밴 옷은 삽시에 빳빳해져서 박 영순 아저씨는 몹씨 떨고 있었다.

그러나 이불도 없었고 모닥불도 생나무여서 피워 놓을 수 없었다. 안타까이 생각하던 강 남송 아저씨는 눈 우에 내민 싸리나무 가지를 하나하나 꺾어다가 꼬깔불을 피워 놓았다.

9) 그러나 그것도 씨원치 않다고 생각한 강 남송 아저씨는 문득 무엇을 생각했는지 적들이 우글거리는 부락으로 달려 내려 갔다. 얼마 후 강 남송 아저씨는 이불을 얻어 왔고 또다시 내려가 마파리 (말 썰매)까지 구해 왔다. 혁명 동지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 쓰는 강 남송 아저씨의 뜨거운 마음에 박영순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10) 박 영순 아저씨를 태운 마파리는 달리였다.

강 남송 아저씨는 달리는 마파리 우에서도 바람이 스며 들세라 이불을 잘 덮어 주군 하였다.

그 때마다 박 영순 아저씨는《남송 동무를 위해서라도 나는 꼭 병을 이겨 낼테다》고 다짐하군 하였다.

이렇게 강 남송 아저씨의 알뜰한 간호로 10여 일후부터 박 영순 아저씨는 동무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혼자 일어 날 수 있게 되였다.

11) 그러나 강 남송 아저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박 영순 아저씨가 잠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병이 나아갈 때 몸 간수를 잘 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번은 강 남송 아저씨가 너무 지쳐 깜빡 잠이 든 짬에 박 영순 아저씨가 밖에 나간 일이 있었다. 박 영순 아저씨는 저녁 식사를 하는 동무들과 함께 군 감자 두 개를 먹고 들어 왔는데 그 때에야 깜짝 놀라 깨여난 강 남송 아저씨는 탈이 나지나 않을가 하여 그 달음으로 뛰여 나가 군 감자를 살펴 보고 돌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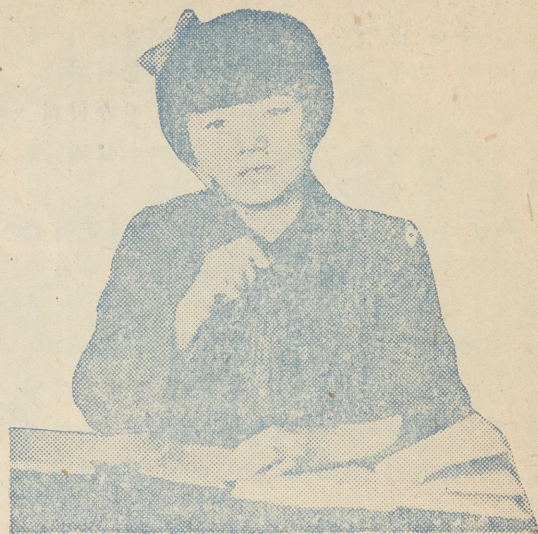
12) 이처럼 박 영순 아저씨는 20 여 일 동안 밤낮 뜬 눈으로 새운 강 송남 아저씨의 뜨거운 동지애로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 나게 되였다.

《됐습니다. 이젠 다 나았습니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강 남송 아저씨를 부둥켜 안은 박 영순 아저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졌다.

혁명적 동지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 이는 박 영순 아저씨를 다시 건전한 몸으로 혁명대오에 나서게 하였던 것이다.

집단과 동무를 위해서라면

—평북도 삭주군 룡암 중학교단 제 5 분단 위원장 허 명순 동무에 대한 이야기—

리 광수

오봉산 줄기 뻗어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 싼 행복한 협동 마을 룡암리!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명순이 라는 아이를 칭찬하며 자랑합니다.

그러면 명순이가 어떤 소년단원이기에 그럴가요?

재 해 열 두 살된 허 명순 동무는 이곳 룡암 중학교 단 제 5 분단 (인민반 4 학년) 위원장입니다.

나이는 어려도 그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분단의 전체 동무들을 최우등생으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분단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친 집단으로 꾸려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허 명순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명순아! 우리가 테려다 주마》

4 반에는 분단에서도 제일 말썽을 많이 부리는 리 형조, 박 정섭, 전 병수를 비롯한 남자 애들 뿐입니다. 이들은 학교에 오다가도 형조의 꾀임에 들어 하루 종일 개울에서 고기 잡이를 하다가 집에 돌아 가군 했습니다.

그래서 4 반을 맡겠다고 자진해 나서는 분단 위원들이 없었습니다.

《광성 유자녀 학원 모범 분단 위원장 문정숙 동무는 언제나 어려운 일은 자기가 맡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분단과 동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 할가!》 이렇게 생각한 명순이는 4 반을 자진 해서 맡았습니다.

동무들은 녀자 애가 어떻게 《말썽'군》들인 남자 애들을 지도하겠는가고 걱정했습니다.

맨 첫 날 저녁이였지요. 명순이가 반실에 들어 서자 형조가 굽신거리면서 일어 섰습니다.

《분단 위원장이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요.》 그러자 반원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꾹 참고 산수 숙제 문제를 한 문제씩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산수 숙제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야! 이젠 숙제 다 했는데 가자!》 병수가 일어 서자 모두가 뒤따라 일어 섰습니다.

할 수 없이 명순이도 일어 섰습니다. 숲 속 오솔'길을 혼자 걷는 그는 애탄 김에 무서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4 반 동무들은 이렇게 명순이를 맞았습니다. 그 때마다 명순이의 머리에는 《이따위 애들을 도와선 뭘한담…》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 났습니다. 그러나 명순이는 이런 생각을 억누르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반 생활에 재미를 붙이게 할 수 있을가? 하고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명순이는 먼저 반원들의 생활 터인 반실부터 잘 꾸려 주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찌기 명순이는 반실에 나와 회칠을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어머니와 누님이 회칠을 도와 주었고 장판까지 깨끗이 해 주었습니다.

이 날 선생님도 반실에 오셨습니다. 명순이는 선생님과 함께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반 벽보와 일과표, 《소년 신문》, 《소년단》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도서들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날 저녁이였지요. 아담하고 깨끗이

꾸려진 반실에 모인 반 동무들은 저마다 기뻐했습니다.

《야! 멋 있게 꾸려졌는데.》하면서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책들도 골라서 읽어 보군 했습니다.

반 동무들이 차츰 반 생활에 재미를 붙이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말썽'군》 들인 형조, 병수, 정섭이는 명순이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순이를 반실에 오지 못하도록 혼내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안개 자욱한 골짜기에 소리 없이 보슬비가 내리는 날 저녁이였습니다. 오솔'길에 들어 선 명순이는 어쩐지 몹시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숲 속에서 《아웅! 아웅!》 하는 짐승의 울음 소리가 들려 오더니 나무 가지가 막 흔들리지 않겠어요.

명순이의 온 몸에는 식은 땀이 쭉 나왔고 머리'같이 바짝 일어 섰습니다.

《형조야!》겁에 질린 명순이는 고함치며 뛰였습니다. 이때 명순이의 앞에는 《하! 하! 하!》 웃으면서 형조, 병수, 정섭이가 나타났습니다. 발걸음을 뚝 멈추고 그들을 쳐다 보는 명순이의 눈에서는 너무도 분한 김에 눈물이 핑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여 《너희들이였구나, 난 또…》 하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조, 병수, 정섭이는 그만 점직해 서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는 그런 장난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지만 형조, 병수, 정섭이는 종종 거짓 말을 꾸며 대고는 반 생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명순이는 그들이 반 생활에 재미를 부치도록 그들의 마음에 맞는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일들을 많이 조직해 주었습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읽은 책 이야기 모임도 가지고 골고루 발표도 시켰습니다. 이런 다음에는 꼭 도서실에서 빌려 온 새 책들을 나누어 주군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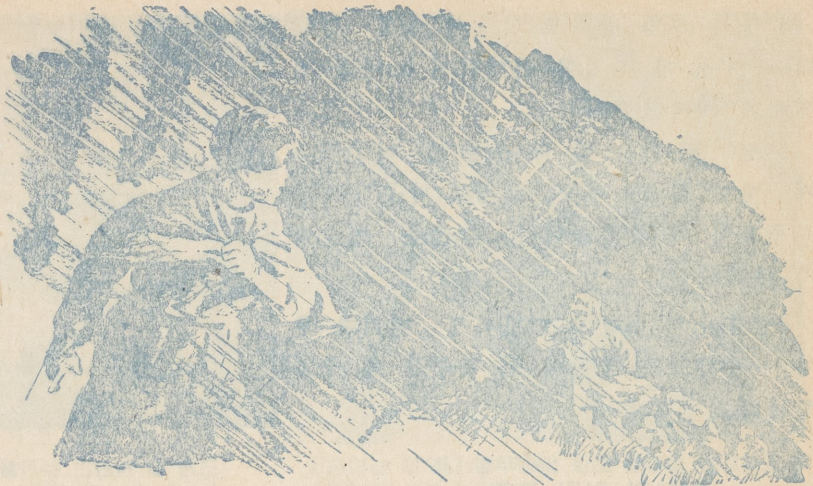
녀자이지만 그는 일요일과 방과 후엔 고기잡이, 군사 유희, 축구 시합, 씨름 등도 조직해 주었습니다.

반 동무들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명순이는 이 좋은 점을 살려 그림 극 《동지들의 뜨거운 사랑》을 만들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반 모임에서 그림 극 틀을 만드는 일, 그림을 그리는 일, 해설하는 일들을 소질에 따라 나누어 맡겼습니다.

반 동무들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5권에서 《동지들의 뜨거운 사랑》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동국이와 칠성이는 그림 극 틀을, 기석이와 정섭이, 상진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화 구경을 한 다음에는 해설하는 흉내를 곧잘하는 형조와 병수는 해설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여 그림 극을 다 만들었습니다. 먼저 반실에서 부모들을 모시고 상연했습니다.

명순이는 《세 아동에 대한 이야기》, 《배움의 첫 걸음》도 그림 극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 나가서도 상연하게 하고 학교 전체 동무들 앞에서도 상연하게 했습니다.

그림 극을 직접 만들고 상연할 때마다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슬기로운 혁명 정신은 4 반 동무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학교 옆 마을인 1 반에 상연하러 나갈 차례였는데 안타깝게도 이틀째나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개울 물은 어찌도 많이 뿔었는지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명순이랑 1 반 동무들이랑 우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니… 얘들아! 우리 오봉산 기슭을 따라 먹'골령을 넘어 가자…》 이렇게 말하는 형조의 뒤를 따라 반 동무들은 그림 극 통을 비옷에 싸서 번갈아 들고 령마루를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령마루에 올라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쪽 숲 속에서 비옷을 쓴 명순이가 이 쪽을 향해 바삐 걸어 오지 않겠어요.

《명순아!》

《형조야! 병수야!》

비 내리는 령마루에서 서로 찾아 떠난 명순이와 4 반 동무들이 만났습니다. 서로 손과 손을 굳게 잡은 이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이 글썽해 서 있었습니다.

4 반 동무들은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말썽'군》들이던 4 반 동무들은 3 학기에 전원이 최우등생이 되였고 반 사업을 잘 하여 분단의 모범 반이 되였습니다.

4 반을 모범 반으로 이끌어 올린 명순이는 다시 반 사업이 뒤떨어진 1 반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 반으로 가는 숲 속 오솔'길 어구에는 저녁마다 형조, 병수, 정섭을 비롯한 4 반 동무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순이가 나타나면

《명순아! 우리가 1 반까지 데려다 주마!…》하고 명순이의 길 동무를 해 주군 합니다.

크게 잘 자라는 토끼를 보고 그들은 언제나 기뻐한다

분단의 어미 토끼

그렇게도 손 꼽아 기다리던 분단의 흰 토끼가 첫 새끼를 낳았습니다. 명순이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토끼 우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입니다. 물에 불군 콩을 가지고 토끼 우리에 달려 온 명순이는 놀랐습니다.

하루 밤 사이에 새끼 8 마리가 다 죽어 버린 것입니다. 죽은 새끼 토끼를 품에 안은 명순이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 후 명순이는 매일 밤 두 번씩 토끼 우리에 나와 어미 토끼를 돌보아 주군 했습니다.

방과 후면 삼태기를 들고 세'골로, 멧돼지'골로, 오봉산으로 토끼 풀을 뜯으려 떠났습니다.

장마철에 들어서 흰 토끼는 다시 8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던지 죽여서는 안돼!》 단단한 결심을 품은 명순이는 자지 않고 토끼 우리에 나와 풀도 주고 깃도 갈아 주군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미 토끼와 새끼들이 추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순이는 토끼들을 몽땅 교실에 들여다 놓고 춥지 않게 가마니를 가져다 덮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가서 어미 토끼가 죽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물'기 있는 풀을 먹였기 때문이였습니다.

젖을 먹고 싶어 빨간 입을 짝짝 벌리는 새끼 토끼를 보는 명순이의 마음은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분단의 토끼인데 죽여서는 안된다…》

명순이는 토끼 가죽을 얻어다가 새끼 토끼를 싸서 자기 집에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쑤어다 먹였습니다. 이것을 본 정자는 우유를 얻어 왔고 옥선이는 꿀물을 가져 왔습니다. 용환이는 콩가루로 죽을 쑤어 왔습니다. 이런 동무들의 수는 날마다 늘어 갔습니다.

8 마리의 토끼는 점점 커서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짓궂은 장마는 계속되였습니다.

명순이는 대'줄기 같은 비를 맞아 가며 산으로 들로 토끼 풀을 뜯으려 다녔습니다. 뜯어 온 풀은 부엌에서 한 잎 두 잎씩 말리워 가지고 토끼에게 먹이군 했습니다.

어느듯 장마철도 지났습니다. 명순이를 비롯한 분단 동무들은 더욱 힘써 토끼를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분단의 토끼는 8마

리에서 51 마리로…12월에는 150 마리도 훨씬 넘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설에는 본래부터 수매해 오던 것과 합쳐서 분단 동무들 전체 (36명)가 흰 토끼털 외투를 꼭 같이 해 입고 새 해 설맞이 모임에 참가 하였습니다.

상진이를 돕고 이끌어

분단 동무들은 모두다 최우등의 대렬에 들어 서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상진이만은 보통 성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명순이는 상진의 뒤떨어진 학습을 도와 나섰습니다.

상진이의 산수와 국어 성적을 높여 주기 위해 명순이는 학교에 오고 갈때 그리고 방과 후를 잘 리용하였습니다.

상진이를 돕기 시작한 첫 날 집으로 돌아 가다 길'가에 앉아 《캄캄한 밤》이라고 써 보라고 하니 상진이는 《캉캉한 밤》이라고 썼습니다. 명순이는 다시 어두운 밤을 생각하면서 《캄캄한 밤》이라고 써 보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야 상진이는 제대로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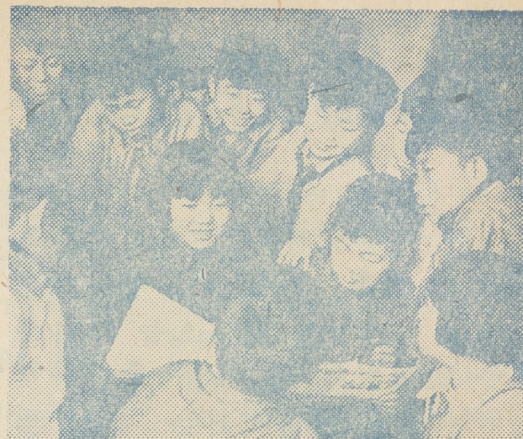
명순이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철'자가 힘든 단어와 문장을 미리 골라 두었다가 방과 후에 상진이를 데리고 앉아서 받아 쓰기도 시키고 단어를 가지고 짧은 글을 짓는 공부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틀린 철자와 띄여 쓰기를 골라 내고 설명해 주군 했습니다.

학교에 오고 갈 때엔 길'가의 여러 가지 물건의 이름을 써 보게도 하고 그것으로 글을 짓게도 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송아지가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명순이는 먼저 《송아지가》,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써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진이는 《뜨더》 《멍고》라고 써 놓았습니다. 명순이는 다시 《뜯고》,《먹으니》 라고 불렀습니다.

《인젠 알았어!》 상진이는 무릎을 탁 치면서 좋아 했습니다.

명순이는 상진이의 국어 공부가 좀 늘어 가자 작문과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수 공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올 때면 암산 문제

명순이는 언제나 동무들과 함께 신문을 독보하며 앞으로 할 일을 의논한다

를 냈습니다.

암산 문제는 주변의 나무들, 산의 머루, 다래, 돌배, 강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쉽게 알아 내도록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힘든 산수 문제는 알 때까지 꾸준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학교와 마을 그리고 산의 모든 물건들을 상진이의 국어와 산수 학습을 돕는 데다 리용했습니다. 상진이는 점점 공부에 취미를 붙이고 열성을 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명순이는 분단에서 수시로 《암산 경기》,《먼저 풀고 설명하기》, 《작문 짓기》등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사업을 조직했습니다.

4 년만에 상진이는 드디여 최우등생이 되였습니다. 12월에 단에서 있은 최우등생들의 경험 교환회 때에 연단에 올라 선 상진이는 자기의 학습 경험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최우등생이 된 것은 허 명순 동무가 잘 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 ×

룡암 마을의 《영예 게시판》에는 천리마 기수들인 모범 농민들의 사진과 함께 나어린 분단 위원장 허 명순 동무의 사진도 붙어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영예의 게시판 앞에서 한참씩 발걸음을 멈추고 어린 명순 동무의 사진을 들여다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민청에 가맹하던 날

조선 로동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인 민청! 나는 이 영예로운 대렬에 들어 섰다. 오늘 분단에서는 민청원이 된 나를 축하하여 소년단에서 필단시키는 분단 총회를·가졌다. 동무들은 나에게 우렁찬 박수를 보내면서 꽃다발까지 안겨 주었다. 7년 동안 귀중히 매고 다니던 붉은 넥타이를 풀고 가슴 속에 간직한 붉은 맹증을 만져 보는 나의 눈 앞에는 오늘의 이 영예를 지니기까지의 나날이 선히 떠 올랐다.

나는 민청원이 되기 위하여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꾸준히 학습하였다. 특히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의 공청원들과 아동 단원들의 모범을 본 받기 위해 나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가.

나에게 항상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은《공청원 리 순희》,《공청원 김 충진》을 비롯한 많은 공청원들의 불보다 뜨거운 혁명 정신이였다.

이렇게 붉은 마음을 다져가면서 민청원의 의무를 학습하는 한편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세운 리 수복 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 영웅들과 로력 영웅들의 이야기도 꾸준히 읽었다.

그 때마다 나도 그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서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나아가는 당과 수령의 참된 전사가 되리라고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꾸준히 학습하며 소년단 생활에 충실하였다. 또한 어려운 일이라면 앞장에 나섰다. 분단에서 가장 뒤떨어진 반이던 1반을 맡아 지도하여 모범반이 됐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뻤던가!

나는 영예로운 민청원!

붉은 맹증을 다시 한번 만지며 굳게 마음 다진다.

항일 빨찌산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공청원들의 풍부한 경험을 더욱 깊이 배우며 본 받아 그들처럼 당과 혁명에 충직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더욱 열심히 학습하며 민청 생활에 충실하여 조직이 위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 내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민청원의 의무대로 배우며 생활 하리라.

함남도 영흥군
덕산 중학교
3 학년 김 사린

왜 그럴가요?

물은 왜 표면부터 어는가?

여름에 저수지의 표면은 태양 광선을 받아 몹시 더워진다. 더워지자 웃 층은 가볍기 때문에 표면에 그대로 남게 된다. 그리고 또 물은 열을 잘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열은 몹시 천천히 아래 층에 전달된다. 때문에 여름에는 물의 아래층은 차고 웃층은 미지근 한 것이다.

겨울에 물은 표면으로부터 식는데 식어짐에 따라 밀도가 커지며 무겁게 되여 높은 온도를 가진 아래 층의 물을 밀어 올리면서 바닥으로 내려 간다. 이와 같이 웃층과 아래층의 물의 이동은 온도가 섭씨 4도에 달할 때까지 진행된다. 저수지의 물 전체가 4도에 달하였을 때에는 웃층의 물이 계속 식는다 하더라도 아래층의 물은 다시 우로 올라 가지 않는다. 왜냐 하면 물은 섭씨 4도에서 가장 밀도가 크며 따라서 가장 무겁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아래 층의 물이 교환을 마치면 웃층의 물이 먼저 얼기 시작한다.

이런 동무를 자랑합시다

착하고 부지런한 신숙 동무

우리들은 모두 안 신숙 동무를 자랑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무들은 대뜸 왜 그런가고 물을 것입니다.

안 신숙 동무는 어린 인민반 3학년 생이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고운지 모른답니다.

신숙 동무는 아침 5시가 되면 벌써 일어납니다. 일어나서는 먼저 비와 삽을 들고 자기 집 둘레와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으로 뻗어 나간 길을 따라 관리 위원회 마당까지 쓸어 놓고 집에 돌아 옵니다

60 이 훨씬 넘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빠와 단 세 식구서 사는 신숙 동무는 빨래 하는 일, 밥을 짓는 일 등 집안 일도 거의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에 부지런한 안 신숙 동무는 공부에서도 누구보다 못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학교 올 때나 갈 때 늘 신숙 동무의 손에 책이 쥐여 있는 것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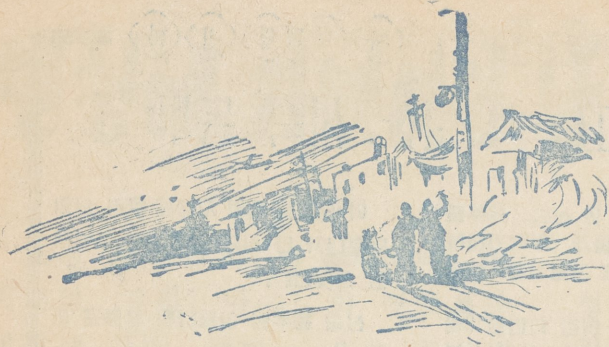
이 모범을 따라 지금은 우리 반의 누구나가 다 신숙 동무처럼 공부하고 있답니다.

신숙 동무의 아름다운 행동은 이것 뿐이 아니지요.

그는 학교의 청소 미화 사업에도 언제나 앞장 선답니다. 3년 동안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학교에 나온 신숙 동무는 언제나 누구보다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교실을 청소하며 난로를 피워 놓군 합니다.

안 신숙 동무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동네 어른들 속에서 례절 바른 소년단원으로 이름난 이야기, 인민반 1학년 동생들을 도와 주는 이야기, 뒤떨어진 동무의 학습을 도와 주어 우등생으로 이끌어 올린 이야기 등 그는 늘 동네 어른들과 동무들의 칭찬을 받고 있답니다.

황남 배천군 수복 중학교 단 통신원 윤 연창

아버지를 찾다가

경상북도 성주군 호전면 소성동에 혁달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혁달이네 집에서는 온 집안 식구가 뼈가 휘도록 농사를 지어도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혁달이 아버지는 온 집안 식구가 굶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농사 지은 곡식을 몽땅 빼앗아 간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 지주놈을 반대해 싸우다가 몰매를 맞아 머리가 터지고 이'발이 다섯 개나 불어졌습니다.

혁달이 아버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원쑤를 갚고야 말겠다고 그 날로 집을 나가신 후 영 소식이 없게 되였습니다.

혁달이는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간신히 목숨을 이어 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혁달이는 14세가 되도록 학교라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여름 군경놈들은 세금을 내라고 밤낮 야단을 하던 끝에 늙은 혁달이 할아버지를 사정 없이 때리고 나중에는 경찰 지서로 끌어 갔습니다.

혁달이는 놈들에게 끌려 가는 할아버지를 끌어 안다가 놈들의 구두'발에 채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늙은 할아버지를 믿고 살던 혁달이는 다 기울어진 초가 집에 홀로 남아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울고 울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할아버지는 사흘만에야 피투성이가 되여 이웃집 칠성이 아버지 등에 업혀 문에 들어 섰습니다. 놈들에게 모진 매를 맞은 할아버지는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죽 한 술도 변변히 대접하지 못하여 안타까와하는 혁달이에게 또 불행이 닥쳐 왔습니다.

장마로 게딱지 같은 집 마저 잃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살길을 잃은 혁달이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슴에 아버지의 사진을 품은 혁달은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떠 돌았습니다. 성주 고을과 대구를 거쳐 부산에까지 이르러서도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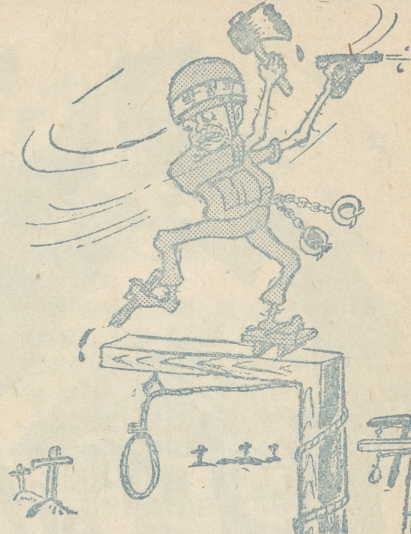
혁달이는 옆구리에 깡통을 차고 다 해진 누더기 옷을 몸에 걸치고 거지가 되여 헤매였습니다. 쓰레기 통을 뒤져 실과껍질과 썩은 생선 대가리를 주어 먹고는 다리 밑에서 가마니를 쓰고 밤을 새우군 했습니다. 혁달이는 미군놈들과 군사 깡패들의 총칼 밑에 짓눌리는 스산한 부산에서 수개월 동안 거지가 되여 헤매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혁달이는 헐벗고 먹지 못하고 헤매인 탓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병으로 기진맥진해진 혁달이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찾지 못한 채 고향을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북산면 포우동 앞 거리에 이르러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른 새벽 지나 가던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그의 몸을 흔들었으나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숨을 넘기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천리'길을 헤매다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죽은 혁달이의 싸늘한 시체를 그러 안고 통곡하는 할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은 남조선을 이와 같이 생 지옥으로 만든 미군놈들과 살인 강도 박 정희 도당을 증오하며 두 주먹을 쥐였습니다.

피를 즐기는 인간 백정

피에 굶주린 살인 강도단 두목 박 정희는 나라 안에서는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밖으로는 미제와 심지어 왜놈들에게까지 나라를 팔아 먹으려고 미쳐 날 뛰고있다.

△과학 환상 소설△

보물의 세계를 찾아서

(전호에 계속)

김 동섭

그림 양 재혁

무지개 속에서

《그런데 저 불은 왜 차거워 보일가?》 연희가 영사막을 한참 드려다 보면서 말하였다.

《그래 정말 무엇이 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종철이도 맥 없이 말하였다.

불빛은 퍽 연했고 무대에서 조명등이 아롱거리는 것 같아 보였다.

수레는 불 속으로 대담하게 기여 들어갔다. 사방은 빨간 불'길로 싸이였지만 조금도 뜨겁지가 않았다.

《정말 기분이 이상한데.》 혜선이가 목을 움츠리면서 말하였다.

그런데 연희가 큰 발견을 한듯이 《진사야!》 하고 웨치는 것이였다.

《이것이 수은을 뽑는 진사로구나》 붉은 조홍색을 보고 정남이도 응답했다.

《그럼 저 불'길은 뭘가?》 혜선이는 아직도 못 믿겠다는 듯이 물었다.

《저건 수은 증기인가봐 증기가 피여 오르는 것이 테레비존에 그렇게 나타나 보인거지.》 종철이도 안심했다는듯이 기관총에 안전 장치를 걸었다.

《수은 증기는 불 보다 더 무섭대. 들어마시기만 하면 당장에…》 종철이는 혜선이더러 가만히 말하였다.

《아이 무서워.》 혜선이는 창과 문의 밀폐 장치를 다시 살펴 보았다.

수레는 전 속력으로 차디찬 불'길 속을 빠져 나갔다.

연한 장미색에 이따금 회석이 섞인 바위들이 나타나자 수레는 퍽 굼떠졌다.

《음, 화강암에 맞다들었구나!》 하면서 종철이는 조종대를 힘 있게 당겼다.

고주파 착공기는 아주 대단했다. 돌비늘 같은 흰 운모알이 물방울처럼 튀여 나갔고 눈 가루처럼 석영이 휘날리고 그 속에서 연한 장미꽃을 피우면서 장석이 부서져 나갔다.

수레는 퍽 굼떴고 발동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윙윙거렸다.

그들은 간단히 요기를 하였다.

《음식을 절약해야 되겠어》 하면서 연희는 우유 한 잔씩과 시루 떡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레가 쏜'살 같이 앞으로 나갔다. 그통에 혜선이는 우유를 모두 엎질러 버렸다.

화강암을 뚫고 나간 수레는 뽀얀 안개 속에 빠져 버렸다. 사방에는 뭉게뭉게 피여 오르는 안개 밖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흩어지는 탐조등의 불 빛은 영롱한 오색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다.

수레 안은 점점 더워졌다. 종철이는 참다 못해 두툼한 운전복을 벗어 던졌다.

연희와 혜선이는 코'잔등에 주먹 같은 땀방울이 솟는데도 차마 옷을 벗지 못하고 발만 높이 쳐들고 있었다. 수레에는 랭각 장치가 있었지만 이처럼 뜨거운 증기 속에서는 그것도 소용 없었다.

《여기가 아마 온천인가봐》 연희는 흠뻑 젖은 손수건을 짜며 말하였다.

《이거야 어디 견디겠나, 목욕은 수레가 하구 땀은 우리가 흘리니.》 종철이의 등에도 땀이 비오듯 했다.

《여기가 어느 온천 아래일가?》 혜선이가 물었다.

《우리 나라에는 이런 온천만 해두 예순개가 넘는다니까 어디 알겠어 땅 우의 온천은 좋지만 여긴 답답해서 틀렸는데.》 정남이도 수건을 짜면서 말하였다.

《씨원한 약수나 한 사발 마셨으면 좋겠네!》 종철이는 물통을 꺼꾸로 제끼면서 찬물을 들여 마셨다.

《약수도 이게 올라 가다가 식어서 된 것이라면서?》 연희는 그 언젠가 선생님에게서 우리 나라엔 이런 약수터가 설흔 일곱군데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났다.

《그러니깐 사람은 땅 우에 살게 마련이야》 정남이가 명철하게 말하였다.

보배 동산

《금 은이나 동같은 귀금속은 모두 화강암 근처에 있다고 했지?》 화강암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 가면서 종철이가 말하였다.

《맞았어, 연, 아연, 월프람 같은 것도 이런 곳에 있다나봐.》 정남이도 말하였다.

《그럼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연희는 주의 깊게 영사막을 살펴 보며 말하였다.

아니나 다를가 영사막엔 노란 바위 덩어리가 나타났다.

《금이다!》 연희는 웨쳤다.

《아니야 황동광이야.》 하고 정남이는 표시기의 검은 록색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그 색은 이따금 노랗게 변하군 하였다.

《이건 틀림 없는 노다지야》

《이곳의 좌표를 적어 두자》 정남이는 혜선이를 돌아다 보면서 말하였다.

《여긴 유달리도 금이 많구나. 지도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가》

무전대 앞에 달린 좌표계 바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혜선이는 그것을 적어 넣었다.

《우리 나라는 참 금이 많은 나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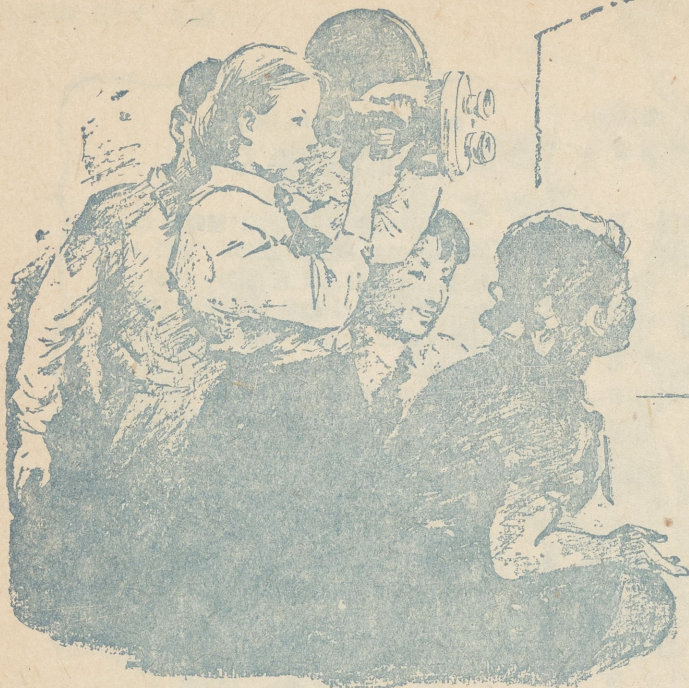
《그러니까 천 여년 전 옛날에도 임금님

이것을 아십니까?
흥미있는 수'자

△ 동무들은 매일 바다'물에서 소금을 다 뽑아 낸다면 그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려 전체 륙지를 130 메터에 달하는 소금의 층으로 덮을 수 있답니다.

△ 만약 공중에 떠 다니는 먼지를 다 모아 다져 놓으면 얼마나 될가요? 그것은 무려 한 변이 180 메터나 되는 립방체가 될 수 있답니다.

△ 어른의 혈관과 모세 혈관을 합한 길이는 얼마나 될가요?

놀라지 마세요. 그것은 무려 10만 키로 메터에 달한답니다.

이 금관을 썼지》 연희는 그 언젠가 박물관에서 본 찬란한 신라의 금관 모형을 눈앞에 그려 보았다.

이러는 사이에 영사막에는 아름다운 연회색 결정체들이 군데군데 덩어리져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수레가 지나가면 소금 덩이 같은 작은 쪼각들이 퍼석퍼석 깨여져 흩어진다.

《방연광이로군.》

《여기서 연, 아연, 은 등이 나나?》

소년들은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이따금 영사막에는 각기둥 모양의 석영 결정들이 나타났다.

흰 수정, 갈색 수정, 록주색, 붉은 것 탐조등이 비추일 때마다 그것들은 찬찬한 빛을 뿌렸다. 사방은 온통 찬란한 보석 동산 이였다.

《야!, 정말 아름답구나!》 그들은 입을 딱 벌렸다.

반짝거리는 각색의 보석들, 둘레에서 비치는 금, 은의 광채… 정말 어떤 옛말에서도 이런 굉장한 보물고는 듣지 못하였고 어떤 아름다운 그림도 이 황홀한 광경을 대신할 수 없을듯 하였다.

그들은 수레를 멈춰 세우고 천연색 기록 영화를 찍기 시작하였다.

룩 건드리면 떼굴떼굴 굴러 나갈듯한 록주옥 구슬, 입술처럼 고운 붉은 결정체, 람색 덩어리, 노랑색 각기둥… 정말 그 옛날 어떤 이름 난 조각공이 여기 와서 보석산을 다듬어 놓고 간 것이나 아닌가 싶었다.

《정말 우리 나라는 보배동산이야. 세계에 희귀한 건 모두 있으니》 종철이는 기계 손을 움직여서 그것들을 한 가지식 골고루 채취하였다.

《우리 나라엔 지구상에 있는 유용 광물들이 거의 다 있다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른다지 않어!》

《정말 금수 강산이야!》

소년들은 그 황홀한 경치에 흠뻑 취하여 오래오래 서고만 있었다.

검은 보물

수레는 찬란한 보석'더미를 헤치고 달려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무엇인지 굳게 막는 것이 있었다.

《이건 또 무어야?》 제 정신에 돌아 온 연희는 영사막을 살폈다. 영사막에는 검붉은 보석 빛이 나타나 있었다.

《금강석이다!》 정남이가 소리쳤다.

《저게 바로 유명하게 굳다는 보석이로구나》 소년들은 유심히 보고 있었고 연희는 현미경 사진을 찍었다.

그처럼 용맹을 떨쳐 온 고주파 착공기도 이것만은 쉽게 뚫지 못하였다.

한참만에야 단단한 벽을 뚫고 나가니 이번에는 물렁물렁한 흑연이 나타났다.

《금강석이나 흑연이나 모두가 같은 탄소로만 되여 있는데 성질은 이렇게도 다르구나》 연희는 계속 현미경을 들여다 보면서 말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선 모두 우리 흑연을 부러워 한다지.》 종철이는 비늘 같은 검은 덩어리를 눈여겨 보았다.

이번에는 영사막에 지층의 갈래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웃층에는 모래, 자갈, 그 아래엔 진흙 층이 보였다. 그 아래엔 또 푸르스름한 바위 층이였다.

《퇴적암이 나타났어》 정남이가 생기 있게 말하였다.

《쌓여서 이루어진 바위라더니 차곡차곡 되여 있구나》 연희도 금이나 그어 놓은듯이 곧바른 경계선에 감탄했다.

《이제부턴 내가 헐해졌어》 종철이가 팔다리를 펴며 말하였다.

《저거 봐》 연희가 큰 소리로 웨치며 영사막 한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엔 선인장 비슷하게 생긴 크고 넓은 잎사귀들이 나타났다. 길이는 사람의 키 보다 서너 곱절이나 되여 보였다.

《저게 뭐야?》 종철이는 무시무시할만큼 길다란 잎을 물끄럼히 바라 보았다.

《애그머니나!》 그 순간 너무도 무서워서 연희는 눈을 가리우고 말았다.

영사막이 가득 차게 나타난 짐승들, 머리와 가슴팍은 범처럼 생기고 허리와 뒤'다리는 동물원에서 본 캉가루처럼 넓적한데 악어의 꼬리와도 같은 긴 꼬리를 가진 무서운 짐승, 아마도 사람 키의 일곱 배는 실히 될 듯한 거물이 입을 쩍 벌리고 둥그런 눈을 부라리면서 노려 보고 있는 것이였다.

종철이도 소름이 쭉 끼쳤다. 그놈의 사시나무 기둥 같은 오른 팔은 금시에라도 수레를 덮어 칠듯이 척 들리워 있었다.

그런데 그놈의 허리와 팔 다리에는 배통이 뒤아름 될 듯한 큰 뱀이 칭칭 감겨 있었고 장독 같은 뱀 대가리가 짐승의 목을 감아 타고 혀를 날름대고 있는 것이였다.

《허헝, 저놈들이…》 정남이도 채 말끝을 맺지 못하고 물러 섰다. 결사전을 하고 있는 눈알들은 보기에도 끔찍했다.

그들의 눈 앞에는 수 억 만년 전의 정경이 나타나 보이는듯 하였다.

…우거진 밀림, 무성한 나무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짐승들을 찔러서 피를 빨아 먹는 무서운 가시 나무가 가지를 설렁설렁 흔들고 있다. 도마뱀처럼 생긴 두어길이나 되는 놈이 그 가시에 등을 찔리워서 다 죽어 가고 있다.

땅은 축축하고 나무들은 아득히 높다. 바닥에는 갈피를 알지 못할 넌출들이 옹기종기 얽혀 있고 관목들이 키가 넘게 자라났다.

호수'가의 공지에서 지금 공룡과 왕뱀이 싸움을 하고 있다. 몸은 군데군데 찢기웠지만 무서운 결사전은 계속된다.

자그만한 파충류들은 그통에 치울가봐 두려워서 멀리들 도망 쳐 버렸다. 나무가지나 늪 우에 엎드린 그놈들은 떼꾼한 눈으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다. 이 싸움으로 골짜기의 패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순간 뾰죽한 뒤'산 봉우리가 콰르릉 땅 울림을 치며 하늘로 솟아 오르더니 시커먼 연기가 삼'단처럼 피여 났다. 하늘을 무심히 지나가던 구름들도 모두 그 산꼭대기에 모여 선듯 했다.

연기는 계속하여 하늘을 덮었다. 시커먼 불구름이 몰려 들자 세찬 연기는 하늘 땅을 몽땅 덮어 버렸다. 공룡도 뱀도 나무도 언덕도 모두가 불'덩이 속에 파묻혀버린다.

《음 굉장한 사건이였구나 그통에 나무도 짐승도 저렇게 굳어서 화석이 되여 버렸구나》 종철이는 무시무시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이것을 아십니까?

한쪼박의 종이라도

낡은 신문이나 책, 학습장 그리고 헌 종이들을 모으면 다시 종이로 만들어 쓸 수 있다.

헌 종이 1 t이면 830 kg의 새 종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나라에서 한 사람이 1 kg씩만 모아도 무려 8,300 t의 새 종이를 얻을 수 있다. 포푸라 나무를 원료로 하여 이만한 량의 종이를 만들어 내자면 63,700 립방메터의 나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무를 팔프가 될 수 있도록 키우자면 여러 해가 걸려야하고 많은 로력이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파지를 리용하는 것이 얼마나 리로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두다 한 쪼박의 종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모아 제지 공장에 보내자

사람의 힘으로 비를 오게 하자면

중앙 기상 수문 연구소 고 신 득

옛날 사람들은 《하느님》이 있어 비를 내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봄철에 몹시 가물어 땅이 트고 곡식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면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지냈다.

그러나 오늘 자연을 사람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마음 대로 변혁시키는 우리 시대에는 사람의 힘으로 비 오게 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비를 오게 할 수 있는가 이야기 해 보기로 하자.

구름은 안개와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 알맹이들로 되여 있다.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의 크기는 반경이 100분의 1미리메터 정도이다)

이런 작은 물'방울들은 약간한 공기 운동에 의해서도 쉽게 우로 올라 갈 수 있다. 만일 아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곧 증발하여 없어지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물'방울이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비'방울은 보통 1~2미리메터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것이 많으며 때로는 그 보다 훨씬 큰 것도 있다.

이렇게 큰 물'방울이 되여야 일정한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도중에 다 증발되지 않고 땅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구름을 이루고 있는 매우 작은 물'방울들이 상당히 합쳐져야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 중에서는 이와 같은 큰 물'방울들이 한꺼번에 생기지 않는다. 여러 가지 리유로 물'방울들이 커진다. 즉 서로 무질서한 운동을 하면서 물'방울들이 충돌한다던가 또는 물'방울 가운데 얼음 알맹이가 들어 가서 그 주위에 수증기가 붙어서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도중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과 충돌하여 급속히 커진다. 구름이 두꺼울수록 물'방울은 더욱 크게 되여 비가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구름이 상당한 정도로 두꺼워야 하며 땅으로부터 구름 밑부분까지가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땅에서 구름이 너무 높으면 비'방울이 떨어지는 도중에 다 증발되여 버리고 땅에까지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교적 낮은 구름이 떠 있으면서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람의 힘으로 구름 속에 있는 작은 물'방울들을 크게 만들어 주면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의 인공 강우 (사람의 힘으로 하늘에서 비를 오게 하는 것) 실험은 이런 원리에 의하여 진행되였는데 실험의 결과 구름 속의 물'방울들을 크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구름을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하자.

첫째 종류는 섭씨 령도 이상의 온도를 가진 구름이다.

둘째 종류는 구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섭씨 령도 이하의 온도를 가지지만 물'방울들이 얼지 않고 있는 구름이다 (이것을 과랭각 수적이라고 한다)

세째 종류는 온도가 낮아서 얼음 알맹이도 있고 과랭각 수적도 있는 구름이다.

첫째 종류에서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들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염화 칼슘과 같이 물을 잘 빨아 들이는 약제나 소금 가루 또는 소금 물을 뿌리면 그 구름 가운데에 크기가 고루지 않은 물'방울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떨어지는 도중에 서로 충돌하면서 더욱 더 커지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구름 가운데 강력한 음파를 보내여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을 충돌시켜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험을 통하여 확증된 것은 아니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실험을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은 방법의 하나는 과랭각 수적이 있는 (그것도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는) 구름에 대하여 고체 탄산 (고체로 된 탄산가스)을 사용하여 물'방울들을 크게 만들어 비를 오게하는 방법이다.

고체 탄산은 표면 온도가 령하 79도이며 쉽게 기체 (탄산가스)로 된다.

이 고체 탄산을 비행기에 싣고 구름 우에 올라가 뿌리면 공기의 온도는 령하 40도 이하에까지 떨어 지면서 무수한 작은 얼음 알맹이들이 생긴다. 이 얼음 알맹이들이 과랭각 수적을 가진 층에 들어 가서 물'방울들과 충돌되여 더욱 더 큰 물'방울들이 되여 비가 오게 된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 가는 구름의 두께에 달려 있다. 즉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므로 구름이 두껍게 깔렸거나 구름이 계속 뭉게뭉게 생겨날 때 이 방법을 한번 쓰면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인공 강우에는 고체 탄산 이외에 옥드은이라든가 기타 물질들도 사용한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인공 강우를 조직할 데 대한 김 일성 원수님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하여 고체탄산을 사용하는 인공 강우 실험들이 크게 진행된다.

이 인공 강우의 방법을 실시하여 우선 발전소 저수지 상공에 뜬 구름에서 비가 내리게 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전기를 일으키게 하며 우리 나라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봄철에 비를 오게 함으로써 저수지에 많은 물을 채우고 가물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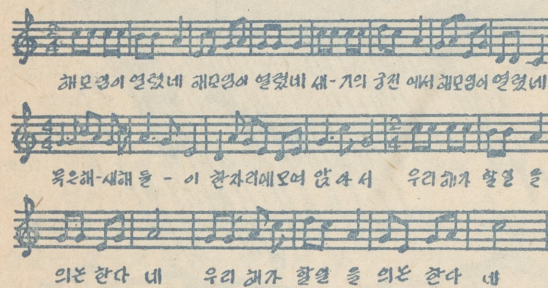
또 구름들이 서로 뭉치어 소나기 구름이 되기 전에 비가 되여 내리게 함으로써 우박이 내려 입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하며 낮은 구름이나 안개를 없애버림으로써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데도 리용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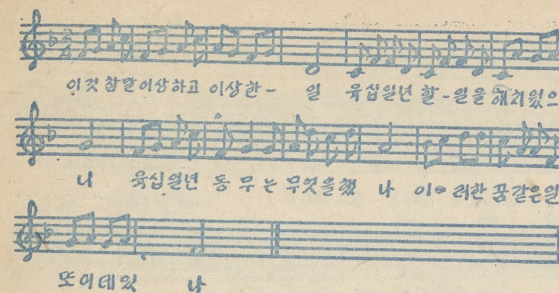
지금 순천 석회 질소 비료 공장에서는 《비 만드는 공장》인 고체 탄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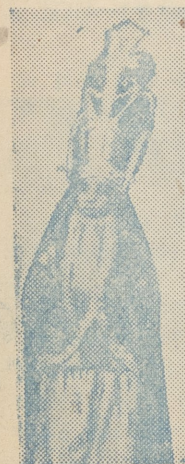
금년부터 이 공장에서는 고체 탄산을 많이 만들어 구름 우에 뿌림으로써 사람의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여 날이 가물 때에도 언제나 전기를 마음대로 생산하게 하며 논밭에 더 많은 물을 댈 수 있게 하며 홍수의 피해도 미리 막아 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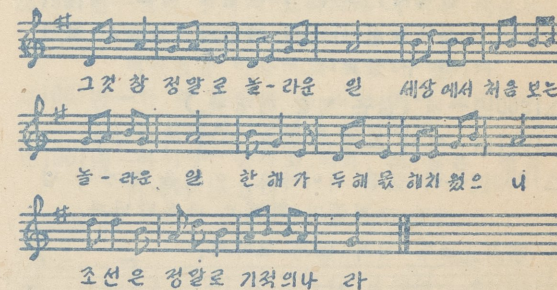
△ 무대—무대 전체가 큰 우주를 련상시킨다.
△ 막이 열리면 20세기가 상좌에 앉고 태양, 달, 별들이 그 좌우에 자리잡고 1901년을 비롯한 20세기의 모든 해들이 모여 노래 부른다.

(노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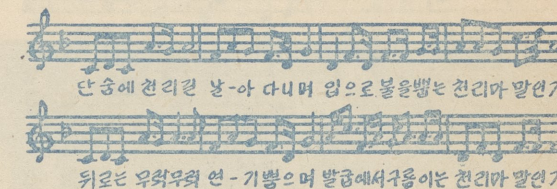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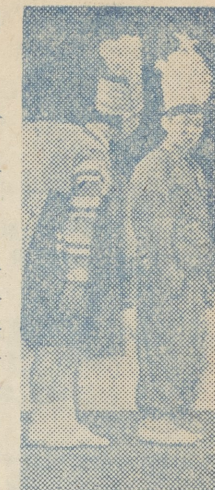
묵은해-새해들 - 이 한자리에모여 앉아서 우리해가 할일 을

△ 세기—다들 모였느냐?
△ 1901년—네!
△ 세기—내 말을 들어라. 오늘 모임은 1962년 새 해를 맞으면서 조선에서 해들이 한 일을 들어 보고 앞으로 할 일을 의논하려 한다.
△ 일동—네!
(노래)—(곡은 1과같다)
일동—훈장을 단 1953년 동무가
아주 뽐내면서 자랑을 하겠지.
1953년—간악한 원쑤 미제를 땅 바닥에 쓰러 눕히고
인민들의 행복을 지켜 싸웠네.
인민들의 행복을 지켜 싸웠네.
일동—다음에는 1956년 동무가
우쭐하여 나서면서 자랑을 하겠지.
1956년—전후 복구 건설 사업을 훌륭하게 해내고서
사회주의 건설의 밑천 닦았네.
천리마 진군의 길을 열었네.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그러면 우리도 자랑 좀 해보자.
천리마 진군의 우렁찬 자랑을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높이 받들고.
5 개년 계획을 앞당겼다네.
5 개년 계획을 앞당겼다네.
△ 세기—아니 5 개년 계획을 앞당기다니 그건 무슨 소리냐?
△ 1960년—네 1961년이 하게 되여 있는 5 개년 계획의 마지막 몫을 제 해가 다 해 버렸단 말입니다.
△ 세기—거 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우리 해들은 수 천년을 두고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다음 해가 할 일은 다음 해에 넘겨 주군 했는데 1961년이 할 몫까지 해버렸다는 네 말은 도모지 믿어지지 않는구나.

(노래 2)

△ 1901년—얘 손자야 똑똑히 말 해 봐라. 무슨 곡절이 있는것 같은데.
△ 1960년—할아버지 정말 그래요. 이 신기한 일들은 조선 인민들이 하였답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 태양에게 물어 보세요.
△ 세기 —응. 태양아. 너는 일년 열 두달 온 세상을 내려다 보고 있으니 잘 알겠다. 60년의 말이 옳으냐?
△ 태양 —네 1960년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온 세상 일을 몇 천 몇 만년 두고 보아 왔지만 조선에서 벌어지는 일만은 도모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 수수께끼 같은 일 뿐이였습니다.
△ 세기—수수께끼 같은 일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 태양—올 해는 제가 빛을 쨍쨍 쪼여서 온 땅의 곡식이 다 말라 붙었으나 이 조선 땅에서는 어디서 솟아 나오는 물이 그렇게도 많은지 대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이 때 풍악소리 먼 곳에서 은은히 들려 온다.)
△ 세기—저것은 무슨 소리냐?
△1960년—100만 톤의 알곡을 증산한 농민들이 분배 받는 기쁨을 노래하는 풍악 소리 올시다.

△ 일동—(수군거린다)
△ 태양—저—기를 보십시오 세계에서 1등 가는 저 비날론 공장 건설만 해도 300%가 아니라 3,000%의 비날론 속도로 해치웠으니까요.
△ 일동—뭐?! 3,000%?!
△ 태양—그런데 세기님 저는 낮에 벌어지는 일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달과 별한테 물어 보면 밤에도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 달 —조선은 밤을 모르는 땅인가봐요.
용광로에서는 밤낮을 모르게 쇠'물이 쏟아져 나오고 건설장에서는 흥겨운 노래 소리가 밤 하늘에 울려 퍼지는데 북반부의 온 땅이 불로 만든 꽃밭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나서 더 많은 빛을 뿌린답니다.
△ 세기—허—거참, 이 조선 땅은 정말 놀라운 곳이로군.

(노래 3)

△ 세기—1960년아 너는 알것이다.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 냈느냐?
△1960년—날개 돋친 천리마를 타고 했습니다.
△ 일동—뭐? 천리마?!

(노래 4)

단숨에 천리길 날-아 다니며 입으로 불을뿜는 천리마 말인가
뒤로는 우뢰우뢰 연 - 기뿜으며 발굽에서 구름이는 천리마 말인가

△ 세기—그래 천리마를 타고 했다는데 그 천리마를 타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1960—바로 저 1930년대 아저씨에게 배웠습니다.
△ 세기—아니 1930년대에게 배우다니.
△1937년—저기를 보십시요 (뒤'배경에 백두산의 전경이 환등으로 나타난다.)
김 일성 원수님을 선두로 한 조선의 공산주의 자들은 저 백두 밀림을 넘나들

며 나라를 찾기 위해 열다섯 해 동안이나 피어린 싸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빛나는 해로 되였습니다.

△1960년—이렇게 모든 곤난을 물리치며 왜놈들을 때려부시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한 1930년대 항일 빨찌산들의 본을 따라 천리마를 탔습니다.

△1910년—(간사하게) 세기님! 이 우주에는 천리마란 없습니다. 이 1960년이 자기 공을 내 세우려는 생룡 거짓 소리 올시다.

△1960년—무엇이라구? 리 완용이가 나라를 팔아 먹고 조선 인민들을 왜놈의 종살이를 하게 한 것도 모르고 있은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 일동—옳다. 1910년은 발언권이 없다. (1960년에게) 그래 1960년아 너는 천리마를, 조선 인민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느냐.

△1960년—네 (붉은 책을 꺼낸다.)

△1901년—아니 그것은 붉은 책이 아니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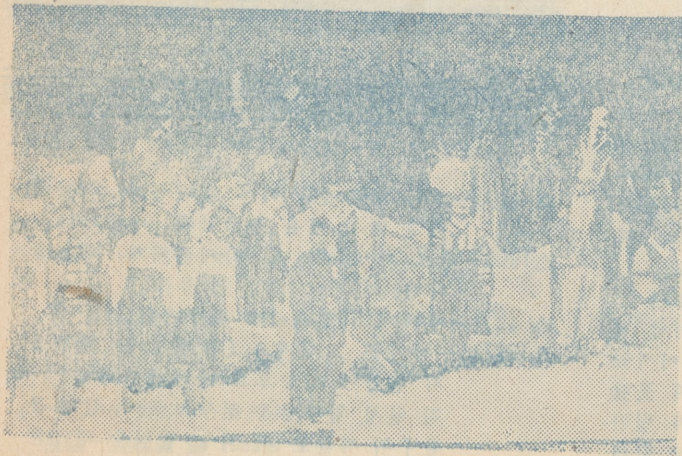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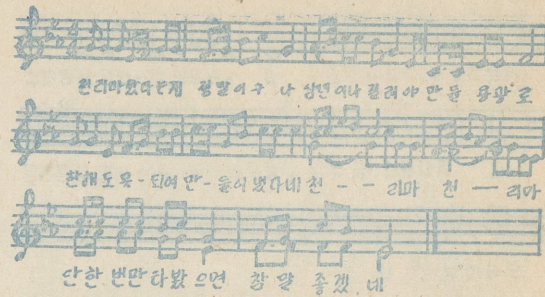
△1960년—네 붉은 책이야요. 이것을 한장씩 넘기면 그것들이 차례로 나온답니다.

△ 세기—그럼 어서 넘겨 보아라.

△1960년—(한장을 넘긴다.)

△ 붉은 교리 느리고 쇠'물이 등장. (무용으로 형상한다.)

△1960년—천리마를 탄 조선의 로동자 아저씨들이 한해도 못걸려 만들어 낸 황해 제철소 용광로에서 방금 쏟아져 나온 쇠'물입니다.

(노래 5)

△ 쇠'물 퇴장. 이어 해주—하성간 렬차 등장. (무용으로 형상한다.)

△1960년—조선 로동자 아저씨들이 천리마를 타고 해주—하성간 750리 철'길을 단 75일 간에 놓았습니다.

△ 일동—(노래) (곡은 5와같다.)

천리마 탔다는게 정말이구나
해주 하성 단숨에 철길 놓았네
천리마 천리마 보고 싶은 천리마.
단 한 번만 타 봤으면
단 한 번만 타 봤으면 참말 좋겠네.

△ 이어 어미 기계를 선두로 새끼 기계들 등장

△ 새끼기계—어머니 우리들도 오늘부터는 천리마를 타고 일을 할래요.

△ 어미기계—응 그래라

△1901년—아니 기계에도 어머니가 있단 말인가.

△1960년—공장마다에 있는 수 많은 기계들이 모두 이렇게 새끼를 친답니다.

△ 일동 (노래) (곡은 3과같다.)

그것 참 정말로 좋은 일이야
기계가 새끼치고 또 새끼쳐서
기계가 모든 일 해 낸다네
조선은 훌륭한 공업의 나라

△ 기계들 퇴장

△ 세기—그만하면 알겠다. 이것이 모두 천리마란 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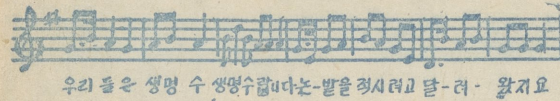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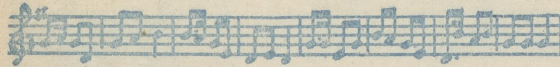
△1960년—네 그렇습니다.

△ 세기—1960년아 네 말을 들어 보니 너희들은 우리 해들의 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세월을 앞당기는 법을 만들어 냈구나.
그래 61년아!
네 앞의 해들이 네가 할 일을 다 해버렸으니 너는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1961년—네 저한테는 더 보람찬 7 개년 계획의 첫해 일이 차례졌습니다. 조선 인민들은 네번째 당 대회를 맞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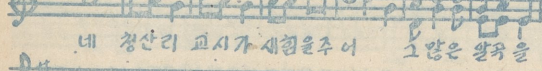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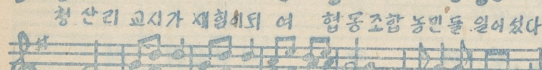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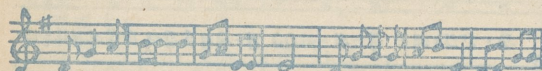
△ 생명수들과 뜨락또르들 등장하여 춤이 벌어진다.

(노래 1생명수)

(노래 1뜨락또르)

일동—(노래) (곡은 6과같다.)

수리화 기계화 좋구 좋와서
100만톤 알곡을 증산했다네
로동당 가르침 옳고 옳아서
그 많은 알곡을 증산했다네

△ 알곡—(등장하면서)
그렇지 그래, 100만톤의 알곡 증산은 첫째로 청산리 교시를 높이 받들고 일어선 농민 아저씨들이 구슬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와 뜨락또르도 큰 일을 했습니다.

(노래 6)

△ 생명수 뜨락또르 퇴장 이어 물'고기들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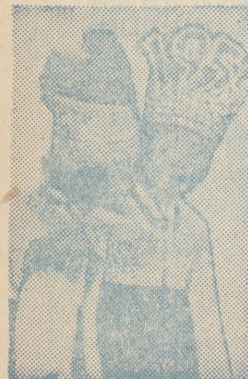
△ 고기1—(두리번거리다) 아—니 고래 아저씨가 어디 갔니?

△ 고래—(무대 옆에서 소리만) 나는 문이 작아서 못들어 가겠다.

△1901년—아이구 무슨 고기가 저렇게도 크나?

△1961년—할아버지 저것은 고래 올시다. 크기는 황소의 40 배나 된답니다.

△1901년—그런걸 어떻게 잡아 왔단 말인가?

△1961년—천리마를 탄 어로공 아저씨들이 먼 바다에 나가 잡아 왔답니다.

(노래) (곡은 5와같다.)

천리마 탔다는게 정말이구나
김 일성 원수님의 교시 받들고
어로공 아저씨들 고기 떼를 찾아서
먼 바다 깊은 바다
천리마 타고서 내달렸겠지

△ 화려한 각종 천들 등장 천들의 춤 벌어진다.

△1901년—야 굉장 하구나 금강산 선녀들이 타고 오른 무지개 같구나.

△1961년—할아버지 이것이 다 돌로 짜낸 비단 천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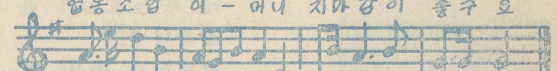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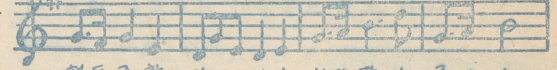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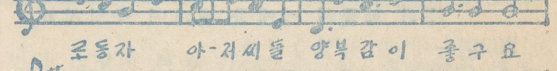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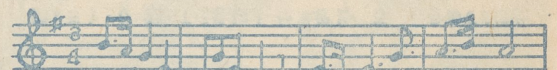
△1901년—아니 돌로 짜 낸 비단 천이라니?! (천을 만져보며 눈을 비비작거린다)

△1961년—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1901년—글쎄 생각해 보려므나 우리는 베옷도 변변히 입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이런 비단천을 마음대로 짜내니 말이다.

△1961년—한 해 동안에 짜 내는 천이 조선 나라 길이의 150배나 된답니다.

△1901년—아이구 끔찍도 해라. 그 많은 천을 어디다 쓰겠니.

(노래 7)

△ 세기—조선 인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이 많은 일들을 해 놓았단 말인가!
그것 참 모를 일이다.

△1960년—세기님! 조선 인민들이 해 놓은 이 모든 성과들은 조선 로동당과 현명하신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항상 조선 인민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 일동—(크게 수긍한다)

△ 세기—산 좋고 물 맑은 조선 땅 현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조선 인민들은 참으로 행복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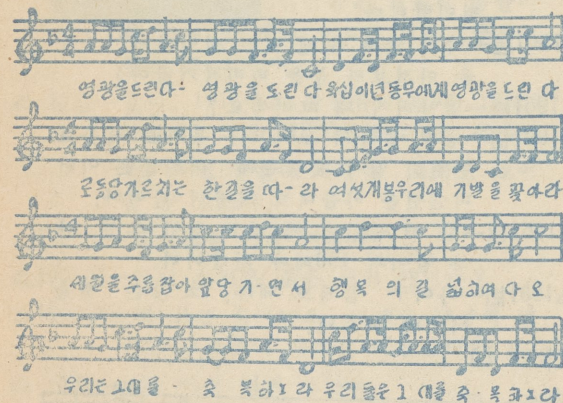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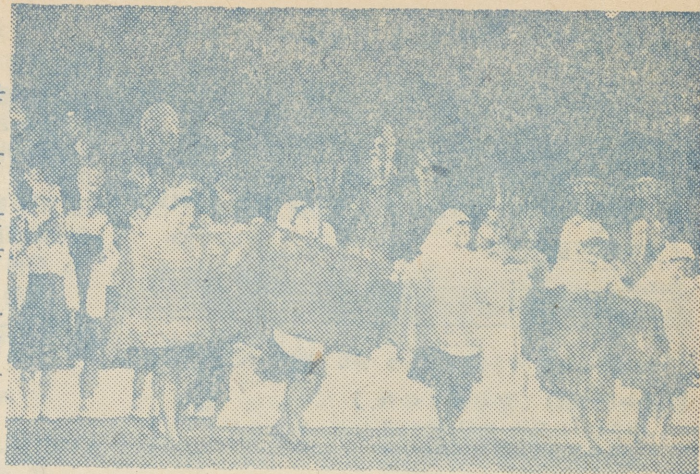
그래 61년아!

△1961년—네!

△ 세기—62년이 조선 땅에 달려 올 시간이 닥쳐 왔다.
너는 62년에게 네가 하던 일을 단단히 넘겨 주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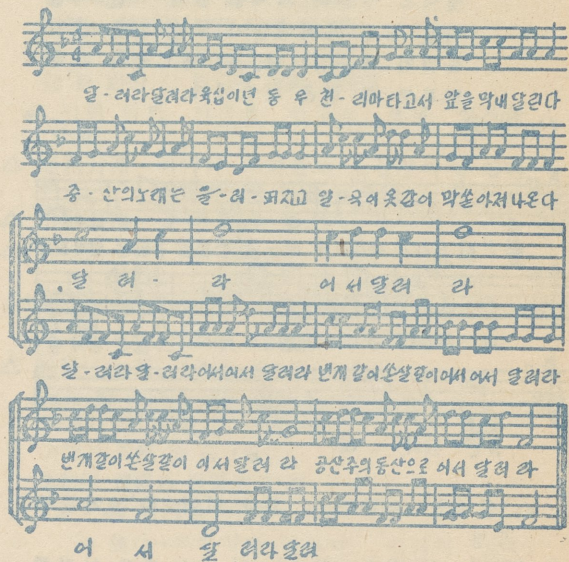
△1961년—네 잘 알았습니다. (재해를 알리는 종소리 궁—궁—울려 온다)

△ 서광이 비치고 무지개 다리가 우뚝 선다. (환등으로) 무지개 다리를 타고 62년이 6개 고지를 거느리고 등장.

(노래 8)

△1961년—62년동무! 내가 하던 일을 넘겨 줄터이니 62년 동무는 일을 더욱 잘 하여 우리 해들의 영예를 빛내여 주십시요.

△1962년—네 잘 알았습니다.
나는 조선 로동당이 가르치는 대로 이 여섯 개의 봉우리에 꼭 오르고야 말겠습니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해가 되겠습니다.

△ 세기—모두들 듣느냐!
천리마를 탄 조선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자.
이 조선으로 하여 나의 영예가 더욱 빛나게 되였구나.
태양아! 그리고 달과 별들아! 이 조선을 향하여 빛을 뿌려라 더 많은 빛을 뿌려라. !

△ 합창과 대 군무 벌어진다.

—— 막 ——

(이 작품은 전국 유자녀 학원 및 초등학원 써클 경연 대회에 참가한 강원도 원산시 원산 초등 학원 단 리 경홍 창작으로 된 경악극입니다)

푸실푸실 흰 눈이 나리는 저녁입니다. 소리 없이 나리는 함박눈은 바다'가 고향 마을 집집마다에 나무 가지에 흰 꽃을 피우며 새 해의 인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 온 나는 털모자를 벗어 수북히 내려 앉은 흰 눈을 털고 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던 어머님은 언제나처럼 반가히 맞아 줍니다.

내 동생 성희가 냉큼 일어나 방그레 웃으며 《오빤 좋겠네…》 합니다.

《뭔데?》

《어서 신발을 벗고 올라 가렴아》

어머니는 어깨의 눈을 털어 주시며 성희에게 눈을 찔끔해 보이십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얼뻥한 마음으로 방안에 들어서니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라지오, 재봉침, 구두!

《얘야, 어서 구두를 신어 봐라.》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엔 자랑과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알곡 4 톤에 현금 800원을 분배 받은 어머니시니까요.

나는 구두를 신어 보기 전에 먼저 라지오의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성희는 오늘 어머니가 사 준 인형을 놓고 짝짝꿍 손벽치며 좋아합니다.

《너의 할머니가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니》

이 기쁜 날 할머니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는 잘 압니다.

우리 할머니는 남반부에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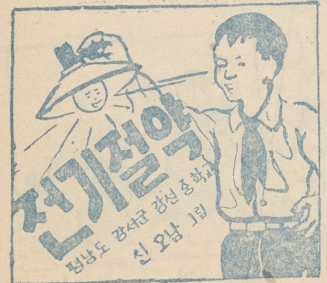
충청도의 어느 산간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우리 아버지는 1950년도에 의용군에 입대하면서 할머니와 갈라졌답니다.

창 밖에 펑펑 내리는 함박눈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데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가 어둡 컴컴한 거리를 헤매고 계시는지 미제 원쑤놈들의 총탄에 맞아 돌아 가시지나 않았는지.…)

어느듯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원쑤들을 빨리 몰아 내기 위해 나는 새해에도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최우등의 영예로, 날에 날마다 우리에게 새 행복을 마련해 주시는 당과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함남 함흥시 퇴조 구역 삼호 중학교
필 종 설

환등기를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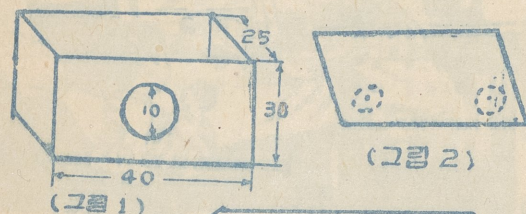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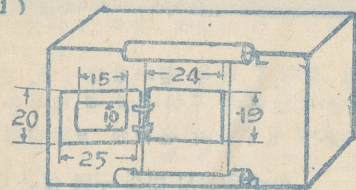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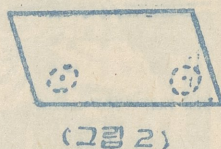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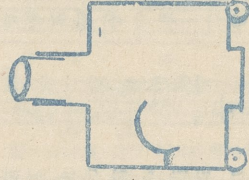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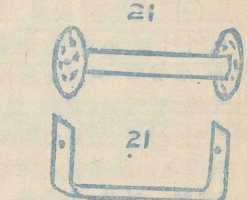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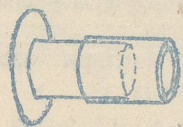
작년 12월 민주 수도 평양에서는 전국 소년단 그림 극 및 환등 극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림 극 및 환등 극 경연 대회에서 일등을 쟁취한 자강도 강계 중학교 단 동무들이 만든 환등기를 소개합니다.

재 료

베니야 판, 양철, 마분지, 렌즈(22cm～29cm) 초점 거리를 가진 량면 凸 렌즈가 좋다). 전구(100 왓트 촉수를 가진 전구) 2 개.

만드는 방법

동체—그림 1에 표시된 규격에 따라 베니야 판 혹은 널판지로 상자(동체)를 만든다. 동체의 뚜껑은 반드시 우로 열게끔 만든다. 그리고 전구의 열이 밖으로 새여 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뚜껑 량모서리에 작은 구멍을 뚫어야 한다.

상자의 밑바닥 모서리에는 그림 3과 같이 두 개의 소케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등 빛이 상자 뒤'벽에 반사되게 하기 위하여 반원형 반사경 (은지 혹은 통조림 통)을 상자의 량 모서리에 부친다.

상자 뒤'벽엔 그림 4와 같은 필림 케스를 만들어 동체의 아래 우에 달고 그림 5와 같이 필림이 지나 갈 수 있게 만든다.

렌즈 관—그림 6과 같이 렌즈 관을 만든다. 상자에 고정된 부분은 좀 크고 렌즈가 달린 앞 부분은 좀 작게 하며 작은 관은 큰 관 속을 빳빳하게 나들 수 있게 한다.

렌즈의 높이와 뒤'벽의 필림 위치는 전등의 제일 밝은 위치와 동일해야 한다.

환등기의 동체는 틈이 하나도 없도록 해야 하며 동체의 바깥과 렌즈 관의 안 벽엔 검은 색을 칠하며 상자 안의 벽엔 흰 색을 칠하여야 한다.

(길이 단위 cm)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검파 수신기 만드는 법

검파 수신기란 광석을 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광석 수신기라고도 부릅니다.

검파 수신기는 검파기와 수신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여 있습니다.

(1) 광석 검파기를 만드는 방법

광석 검파기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광석은 방연광(콕스처럼 생기였다)과 카보람담이다.(카보람담이란 연마석을 만들기 위하여 모래와 콕스를 혼합하여 약 1,700～2,200 도의 열에서 구워 낸 돌이다.)

이와 같은 광석을 직경이 3～5 mm 정도의 크기로 깨서 그림 1과 같이 깨끗이 닦은 금속 판 우에 놓은 후 동 (구리) 혹은 황동선 (놋그릇 같은 금속)으로 바늘을 만들어 광석에 접촉시키면 검파기는 기본적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만들면 좋습니다.

직경이 1 cm, 길이 5～7 cm 정도의 유리관의 밑을 금속 판으로 막습니다.

다음에 유리관 안에 광석을 넣은 후 용수철 모양으로 만든 바늘을 넣고 금속 마개를 막습니다.

이 때 바늘이 광석의 어떤 부분에 대이는가에 따라 소리가 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바늘을 여기 저기에 대여 보며 나사로 바늘을 누르는 힘도 조절하면서 소리가 잘 나게 해야 합니다.

(2) 수화기 만드는 방법

수화기는 그림 3과 같습니다.

수화기를 만드는 데는 말굽형 자석과 코일 그리고 진동 판이 있으면 됩니다.

진동판 재료로서는 얇은 철판 (0.2～0.3 mm)을 사용합니다. (백색 철판이 좋다)

자석의 량 극에는 코일을 3,000 회 이상 감되 그 회수가 같아야 합니다. 진동판과 자석과의 거리는 0.7～1.2 mm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진동판에는 말이 잘 들리게 하기 위하여 가운데에 구멍을 많이 뚫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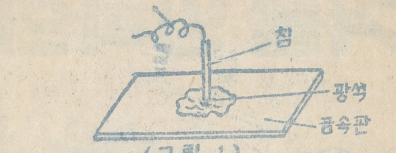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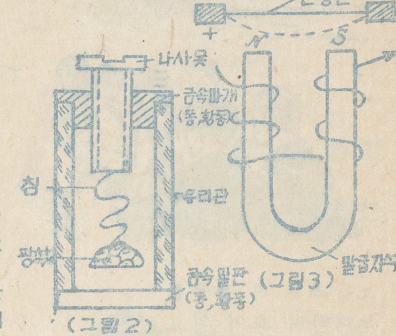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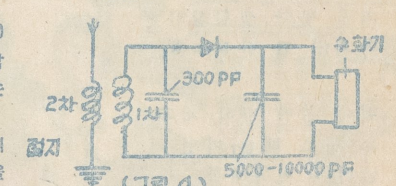
(3) 선륜 만드는 법

선륜은 그림 4와 같이 두터운 마분지로 직경이 약 10 mm 정도의 원통형을 만든 다음 0.07 mm의 코일을 여러 줄(대략 6～8 줄) 겹쳐서 100～120 회 감습니다. (1 차 코일) 그리고 그 위에 또 약 20회 정도 (2 차 코일) 코일을 감습니다. 이 때 1 차 코일과 2 차 코일이 합선되지 않게 파라핀 종이를 씌워야 합니다. (2 차 코일의 회수는 소리를 조절하면서 적당히 감는다.)

(4) 광석기와 수화기를 련결하는 법

련결법은 그림 5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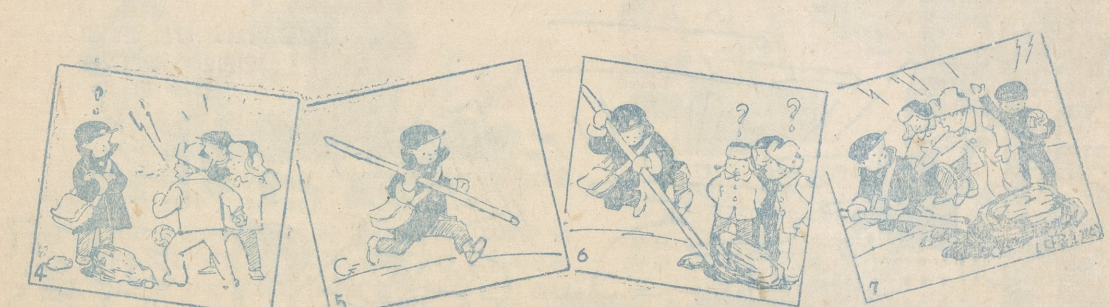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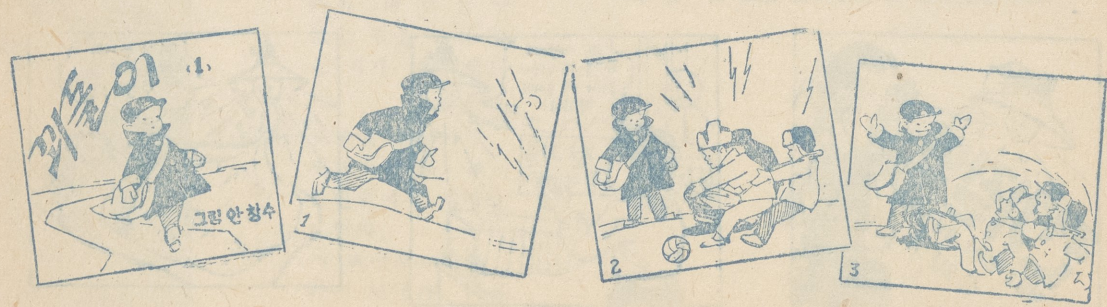
침 광석 금속판 (그림 1)

진동판 나사못 금속마개 (동, 황동) 침 유리관 광석 금속밑판 (동, 황동) (그림 2) 말굽자석 (그림 3)

(그림 4)

2 차 코일의 한쪽 선을 안테나에 련결하고 한쪽 선은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1차 코일의 한 선은 검파기에 련결하고 그것을 수화기의 한쪽 선에 련결합니다.

다음에는 1 차 코일의 한쪽 선을 그냥 수화기의 한쪽 선과 련결하면 됩니다.

※ 소리가 깨끗하고 더 높게 들리게 하기 위하여서는 축전기(300 피크론 파리드가 적당하다)를 다는 것이 좋습니다.

안테나 높이를 7～8 m 정도하면 소리가 높습니다.

겨울 방학의 하루

이른 새벽 울려 퍼진
하나, 둘, 셋, 넷…
우리 반 동무들의
조기 체조 힘차지요.

오롱조롱 반 동무들
노래하며 모여 와요.
겨울 방학 생활실인
옥희네 집 반실로요.

벽에 붙인 방학 계획
그 대로 해 나가면
날마다 새록새록
재미 있고 신나요.

지금은 오락 시간
노래하는 저 애는요.
산수 숙제 늘 못하던
옥희 동무예요.

노래하는 옥희 동무
얼마나 좋겠어요.
반 동무들 서로 도와
최우등생 되였지요.

량강도 운흥군 생장 중학교
3 학년 허 태 규

동요

새해가 왔어요

새 해가 왔어요
6 개 고지를 점령하는
승리의 새 해가 왔어요.

아버지 일하시는 제강소에선요
120만 톤 강철 고지 문제 없다며
끓는 쇠'물 부글부글 노래로 불러요.

어머니 일하시는 협동 벌에도
풍년 싣고 기쁨 싣고 새 해가 왔어요
500만 톤 풍년 고지 춤추며 넘는대요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서나
새 해는 힘차게 사람들을 불러요.
《모든 것을 6 개 고지 점령에로!》

우리들도 모두 함께 마음 다지죠.
올해에도 새 지식 더욱 익히여
최우등 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자고.

평남도 강서군 강선 중학교
인민반 3 학년 2반
김 덕 수

동무에 대한 뜨거운 사랑

글 류 봉의
그림 최 순천

(1)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백 광선 동무는 평양시 봉화 중학교 인민반 4 학년생이며 소년단 위원이다.

나어린 심장에 불보다 뜨거운 동무에 대한 사랑을 지닌 그는 2 학년 때부터 오늘까지 미제 원쑤놈들에게 발을 빼앗긴 같은 반의 리 창식 동무를 업고 고개를 넘어 학교에 다녔다. 그리하여 그는 동무들로부터 한결같이 《공산주의 붉은 꽃송이》라 불리우고 있다.

(2) 어머니에게 업히워 학교에 오가는 불쌍한 창식이가 자기 학급에 와서 같은 책상에 앉게 된 날! 광선이의 마음은 자꾸만 창식에게로 쏠렸다.

《동무들이 활개치며 뛰노는 것이 얼마나 부러울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광선이는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서 이렇게 결심하였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개울을 건널 때마다 어린 동생들을 업어 건너 주신 것처럼 나는 창식이를 업어 주자!》

(3) 그날부터 광선이와 창식이 사이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피기 시작하였다.

광선이는 아침마다 창식이를 업고 봉화산 고개를 넘어 학교에 오고 저녁에도 업고 돌아 갔다. '창식이를 업고 가다 길'가에 넘어져 고생한 일도 한 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광선이는 한 번 다진 결심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4) 그 해 겨울 방학이 다가 왔다. 동무들은 모두 입단 준비에 바빴다. 다만 창식이만이 자기는 발이 없기 때문에 소년단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도 매고 싶던 붉은 넥타이도 영영 매 보지 못할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이것을 안 광선이는 그 길로 담임 선생을 찾아 갔다. 창식이도 소년단원이 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광선이는 방금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 듯이 기뻤다. 그는 더 잘 도와 주리라 굳게 마음 다졌다.

(5) 즐거운 겨울 방학이 왔다. 광선이는 매일 창식이를 업고 자기 집에 와서 함께 공부하며 방학의 나날을 동무를 위해 고스란히 바쳤다.

눈 나리는 어느 날 광선이는 봉화산 고개를 넘다 그만 창식이를 업은 체 깊은 폭탄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광선에게는 온갖 곤난을 박차고 서로 돕고 이끌며 끝내 내두산을 찾아 간 아동단원들의 모습이 삼삼히 떠 올랐다. 그는 용기를 내여 기여 오르고 또 올랐다.

(6) 광선이의 성의 있는 노력은 드디여 보람을 나타내였다. 락제를 하던 창식이는 우등생이 되였다.

이듬 해 봄 봉화산 기슭에 살구 꽃이 활짝 핀 4월 15일 광선이와 창식이는 처음으로 붉은 넥타이를 매게 되였다. 광선이에게 업히여 주석단 앞으로 나아간 창식이에게 지도원 선생님이 붉은 넥타이를 매여 주실 때 모여 섰던 아버지, 어머니들은 광선이의 아름다운 마음에 감격하여 모두 눈물을 흘려다.

(7) 3 학년이 되자 광선이는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어느 날 광선이는 분단의 일부 동무들이 별명을 지어 가지고 놀려 주는 바람에 창식이가 슬피 우는 것을 보게 되였다.

그날 밤 광선이는 잠들지 못했다. 《동무들이 나쁜 것은 아니야. 나쁜 놈은 창식이의 다리를 빼앗아 간 미제 원쑤놈들이야! 이것을 분단 동무들에게 똑똑히 알려 주어 모두가 한결 같이 창식이를 도와 나서도록 하자!》

(8) 그때부터 며칠 후 광선이네 분단 동무들은 신천박물관 견학을 가게 되였다. 견학에서 돌아 온 광선이는 곧 《미제는 우리의 원쑤이다》 라는 제목으로 분단 모임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우리 창식이의 다리는 바로 그 미제 원쑤놈들이 빼앗아 갔다. 저주로운 원쑤놈들! 그놈들을 쳐부시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창식이를 돕자!》

모임이 있은 후 학현, 형일, 영섭, 창달, 룡호, 선택 덕연이를 비롯한 분단 동무들이 앞을 다투어 창식이를 업고 다니기 시작하였다.

(9) 분단 동무들이 앞을 다투어 창식이를 돕게 된 것이 광선이에게는 끝 없이 기뻤다.

《동무들이 그럴수록 내가 더 열성을 내야 한다. 창식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던지 해주자!》

광선이는 이렇게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 해 봄! 5. 1절 날 광선이는 창식이에게 축구 구경을 시키려고 그를 업고 모란봉 경기장으로 갔다. 그러나 돌아 오던 길에 그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10) 광선이는 창식이를 업은 채 밤 거리를 걷고 또 걸었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파 걸음마저 잘 되지 않았다.

《명절 날인데 실컷 구경이나 하자!》 광선이는 이렇게 창식이를 안심시키며 용기를 내여 걸었다.

밤 거리를 거닐던 아버지, 어머니들은 광선이의 아름다운 마음에 한결 같이 감격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광선이와 창식이를 뻐스에 먼저 태워 주시고 한 인민 군대 아저씨는 뻐스에서 내리는 창식이를 집에까지 업어다 주었다.

두 형제와 구슬

옛날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늙으신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의좋게 지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두 형제는 매일 나무를 해다가 거리에 가서 팔군 하였습니다.

아침이면 둘이 함께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 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아우는 형의 몫까지 지고 거리로 가서 팝니다. 그 동안에 형은 강에 가서 찬'거리로 고기를 낚고 아버지는 집에서 지게를 고친다, 신을 삼는다 하며 집안 일을 돌봅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는 밥상을 차려 놓고 서로 음식을 권해 가며 저녁 밥을 먹습니다.

하루라도 나무를 아니 하면 밥을 지을 쌀이 없고 하루라도 고기를 낚아 오지 않으면 찬'거리가 없었답니다.

그러니만큼 두 형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저녁 밥을 지어 놓고 형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끼니 때가 지나도록 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 날도 여전히 아침에는 나무를 해 놓고 낮에는 낚시를 가지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 일인지 그 날은 좀처럼 고기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련성 강 속에 낚시를 던졌지만 고기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속이 상하였습니다.

《늙으신 아버님께 어떻게 맨 밥을 드린담.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동생에게 어떻게 맨 밥을 먹인담. 집에선 이런 줄도 모르고 밥을 지어 놓고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강 속에서 물거품이 부글부글 끓어 올랐습니다.

형은 깜짝 놀라 눈을 둥그렇게 뜨며 강을 바라 보았습니다. 대가리가 주먹만한 잉어 한 마리가 강 우로 불끈 솟아 올랐습니다. 잉어는 입에서 무엇인가 배앝는 것 같더니 다시

(11) 1960년 4월 광선이네 분단 동무들은 유서 깊은 만경봉에 올라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궐기하였다.

《꼭 창식이를 최우등생을 만들리라!》 이 날 광선이는 이런 결심을 굳게 다졌다. 그 후 광선이는 분단 동무들의 앞장에서 창식이의 학습을 성의껏 도왔다.

1961년 8월 창식이는 드디여 영예로운 최우등의 성적증을 받았다.

그리고 12월에는 영예의 《모범 분단》이 되였다.

(12) 창식이가 처음 최우등생의 성적증을 받은 날 광선이는 학현, 형일 , 영섭, 룡호, 창달, 선택이를 비롯한 동무들과 함께 창식이를 업고 3 년을 하루 같이 넘나든 봉화산으로 올랐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앞날의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자!》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전사가 되자!》

그들은 이렇게 굳게 마음 다졌다.

물 속 깊이 쑥 들어 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갈라지며 쪼르르 하고 형 앞으로 한 알의 구슬이 굴러 왔습니다.

《잡히라는 고기는 아니 잡히고 어떻게 된 셈이야?》

하고 혼자'말을 하며 형은 구슬을 주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구슬은 반짝반짝 빛나고 참으로 아름다왔습니다. 세 식구는 그것을 고이 간직해 둘 작정으로 방안을 두루 살폈습니다.

원체 가난한 살림이라 별로 둘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독 안에 구슬을 넣어 두기로 했습니다. 쌀독에는 아침 끼니가 될가 말가한 쌀이 밑바닥에 약간 깔려 있을 뿐이였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조반을 지으려고 쌀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쌀독엔 쌀이 가득 차 있고 한 가운데에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참으로 이상하여 그 날 저녁에도 빈 쌀독에 구슬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도 쌀독에는 전날과 같이 쌀이 그득히 차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이 비였던 쌀독에는 쌀이 하나 가득 했답니다.

늙으신 아버지는 물론 두 형제는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꺼림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한자리에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구슬 때문에 무슨 변이나 생기지 않을가?》

《그러니 미리 팽개치는 것이 어떨가?》

《도적질해 온 것은 아니니까 괜찮을거야》

《그러나 괜찮을런지, 언짢을런지 누가 알겠어?》

밤 늦도록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았으나 어떻게 하자고 선뜻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깊이깊이 생각에 잠기고 계시던 아버지는

《얘들아, 나는 일흔 살 나며지 살아 왔어도 의 좋게 지내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몹쓸 봉변이 떨어지는 것을 보질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모처럼 얻은 구슬을 버릴 것은 없다. 그 대신 그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하고 형제끼리 의 좋게 지내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이 어떠냐?》

두 형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찬성했습니다. 세 식구는 구슬을 집에 간직해 두고 그 전보다 몇 곱절이나 더 부지런하고 의 좋게 일하며 살아 갔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 늙으신 아버지는 그만 세상을 떠나시였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가 남겨 놓고 간 재산을 꼭 같이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솥도 지게도 그릇도 옷도 꼭 같이 절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집은 반으로 나눌 수가 없어서 새로 큼직하게 딴 채를 짓고 아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눌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은 구슬이였습니다.

형은 자기는 구슬이 없어도 제 힘으로 넉넉히 살아 갈 수 있으니 아우더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우도 자기는 제 힘으로 살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구슬을 형더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은 아우더러 가지라거니 아우는 형더러 가지라거니 서로 사양하기를 사흘이나 하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두 형제는 구슬을 얻은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두기로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구슬을 가지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형이 구슬을 얻던 그 날과 꼭 같이 강 속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떠 오르더니 큰 잉어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솟아 올랐습니다.

잉어는 입에서 구슬 한 알을 배앝은 다음 곧 물 속 깊이 들어 갔습니다.

구슬은 물'결을 가르며 두 형제의 앞으로 쪼르르하고 굴러 나왔습니다.

두 형제는 여간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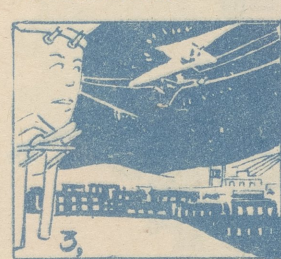
두 형제는 구슬을 한 알씩 나누어 가지고 여전히 부지런하게 일을 하며 의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1) 오늘도 《쾅! 쾅!》 물 소리 요란한 수력 발전소에서 밤 12 시에 반짝이가 태여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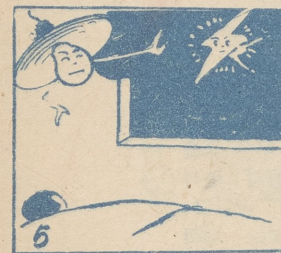
천리마 시대에 태여 난 반짝이는 이제 자기가 할 보람찬 일을 생각하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2) 반짝이는 노래를 부르며 고압선을 타고 배전부에 이르렀습니다. 로동자 아저씨는 싱글벙글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오! 반짝이로구나! 다른 동무들은 모두 공장에 갔다만 너는 공부 잘 하고 례절이 밝은 소년단원들의 집집마다에 가는 것이 어떨가?》

반짝이는 로동자 아저씨가 고마왔습니다.

(3) 반짝이는 로동자 아저씨가 가리켜 주는 길을 따라 두메 산'골에 사는 철수네 집에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겠습니까? 철수네 집은 물론 모든 집집마다에 낯선 반짝이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춤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해진 반짝이는 이 까닭을 변압기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변압기는 배를 척 내밀며 《그건 철수네 분단 동무들이 전기를 절약하여 공장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자고 소형 발전소를 만든 탓이라우》 하고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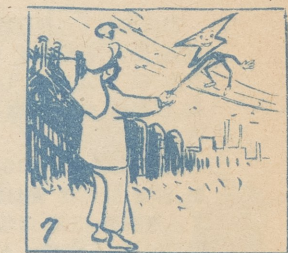
(4) 그러나 그의 말이 미덥지 않은듯 반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방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때 소형 발전소에서 똑딱거리던 철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 반짝이야, 우리는 여기서 나는 전력을 가지고 실험 실습까지 한단다. 우리 걱정일랑 하지 말고 공장 로동자 아저씨들한테 찾아 가렴》

(5) 반짝이는 철수네 분단 동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도시 첫 입구에 사는 순옥이네 집에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순옥이네 집 방안에 자리 잡고 잠을 자던 《전구》가 손을 척 내밀며 《얘 순옥이는 잠잘 때면 언제나 나도 잠을 자라구 불을 끄고 자는 애란다. 저 아빠트에서 사는 용길네 집에나 가 보렴!》 하고 반짝이를 떠 밀어 버리는 것이였어요.

(6) 반짝이는 할 수 없이 언제나 전등을 켜고 잠자는 용길네 집을 찾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키다리 《전주》가 킥 웃어 대며 《반짝이야 용길이가 어제'날의 용길인줄 알어. 저걸 좀 보려므나!》 하고 긴 팔을 들어 아래'켠을 가리켰습니다. 반짝이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똥실똥실한 소년단원이 전등을 켜고 잠자는 집집에 다니면서 《전기를 절약합시다.》하고 이깨워 주며 돌아 다니는게 아니겠어요.

집집마다에 켜졌던 전등'불은 하나 둘 꺼지는 것이였습니다.

(7) 《참 기특한 애들이야 산간에서 사는 아이들도 도시에 사는 아이들도 모두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힘쓰는 로동자 아저씨들을 돕거든…》

반짝이는 이 기특한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로동자 아저씨들에게 알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반짝이는 달음질 쳐 황해 제철소에 찾아 갔습니다. 반짝이를 반긴 로동자 아저씨들은 반짝이의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하시며 더욱 일'손을 다그쳤습니다.

눈이 내리면 왜 날씨가 포근할가

눈을 남비에 넣고 녹이려면 밑으로부터 불을 때고 열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녹은 눈을 수증기가 되게 하려면 더 많은 열을 가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수증기는 눈보다 더 많은 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는 반대로 수증기가 식어서 물이 되고 물이 더 식어서 얼음이 되려면 그 동안에 많은 열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눈은 공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어서 된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수증기가 눈이 되려면 그것이 가지고 있던 열을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수증기가 되여 공중으로 올라갈 때 받은 열을 다시 받아 내는 셈이다. 따라서 눈이 오는 날은 날씨가 푸근한 것이다.

그러나 눈이 오면 언제나 푸근한 것은 아니다. 례를 들면 다른 지방의 공중에서 수증기가 눈이 되여 가지고(이미 열은 내보내고) 바람에 불리여 이동하여 와서 떨어지게 되면 찬 눈만이 내리게 되므로 날이 추워질 수 있다. 게다가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추위가 더 심하게 된다.

만년필 속의 공기

동무들은 아마 만년필로 글을 쓰다 잉크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와 종이를 버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흔히 만년필 안의 잉크가 거의다 없어져 갈 때에 일어 난다. 어째서 그럴가?

만년필 안의 잉크가 거의다 없어지면 잉크 대신에 만년필 안에는 공기가 그만큼 많이 차게 된다. 이런 만년필로 글을 쓰게 되면 만년필을 쥔 손의 따뜻한 기운이 만년필로 옮아 가서 그 속에 들어 있는 공기를 데워 준다. 그러면 공기는 온도에 의하여 크게 불어나므로 만년필 안에 얼마 남지 않은 잉크를 한꺼번에 몰아 내게 된다. 그리하여 잉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잉크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새로 잉크를 넣어야 한다.

스케트는 어째서 얼음우를 잘 미끄러져 나가는가

강판에서 스케트를 재미있게 타는 동무들! 왜 스케트는 잘 미끄러져 나가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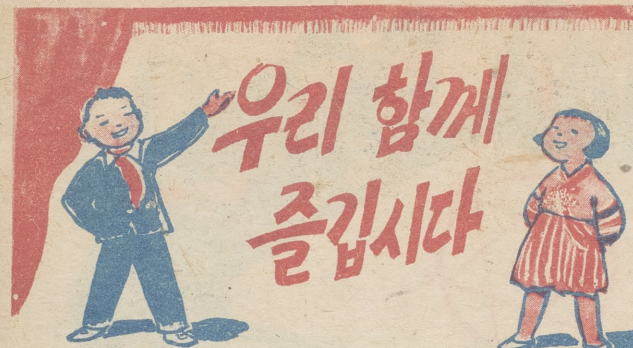
이제 그것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 보기로 합시다.

스케트를 타고 얼음 우를 미끄러져 나갈 때 스케트의 날과 얼음이 부디쳐 열이 나게 됩니다. 이 열로하여 스케트 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물이 고입니다. 이 물은 기계를 잘 돌게 해 주는 기름과 같이 스케트 날과 얼음 사이를 미끄럽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은 얼음우를 아무 거침 없이 자유롭게 스케트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무들의 머리 속에는 또 이런 것이 의심될 것입니다.

얼음 우엔 많은 물'줄기들이 생길 것이며 그것이 계속되면 얼음판은 온통 물판으로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겨울 날씨는 몹시 춥습니다. 때문에 얼음 우를 스케트 날이 지나가자 일차 물은 얼어 버리고 맙니다. 다만 동무들의 눈에는 오리오리 찢긴 흰 줄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쓰면 쓸수록 늘어 가며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2, 아침과 저녁 때는 길어지고 한 낮에는 짧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3, 열 놈은 잡아 당기고 다섯 놈은 들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4, 제가 제 꼬리를 잘라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답은 뒤' 페지에 있습니다).

고리 쩨기 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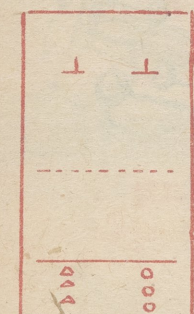
1) 유희 조직

유희자들은 같은 인원으로 두 편으로 나눈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ㄱ,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ㄴ, 유희자들은 출발 구역을 향하여 종대로 선다.

ㄷ, 각 편의 유희자들은 고리를 3~4 개씩 쥐고 선다.

3) 유희 방법

ㄱ,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각 편의 1 번 유희자들은 고리를 쥐고 고리 던지는 장소까지 모둠발 뛰기로 간다.

ㄴ, 고리를 던지는 장소에서 유희자들은 임의의 방법으로 막대기를 겨누어 고리를 던진다.

ㄷ, 이렇게 하여 고리를 제일 많이 껜 편이 이긴다.

학교 운동장에 고리 던지기 장소를 만들어 놓고 놀아 보십시요.

완전한 그림은?

소년단원 동무들!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 가운데는 완전히 그린 고양이는 단 한마리 뿐이랍니다.

우리 모두 찾아 보자요. 완전히 그리지 못한 고양이는 완전히 그려 보고 완전히 그린 고양이는 몇 번째인가 찾아 보십시요.

누가 덫의 끈을 쥐였을가요?

세 소년단원들이 참새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덫의 끈을 쥐였을가? 우리 모두 찾아 보자요.

(오)(락) 누가 먼저 그리나?

그림과 같이 원 안에 6각별이 그려져 있다.

어느 임의의 점 (ㄱ, ㄴ, ㄷ, ㄹ, ㅁ, ㅂ) 에서부터 시작하여 한번 지난 곳은 다시 지나지 않고 원과 6각별을 그려 보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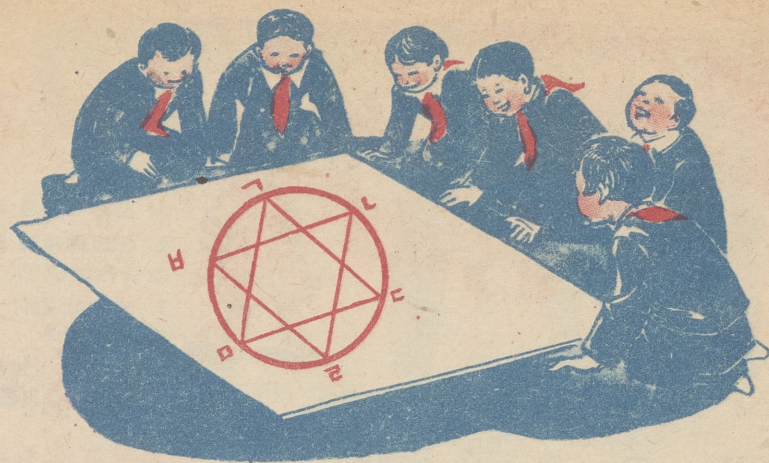
(종)(이)(공)(작) 내 달리는 강아지

만드는 방법

그림 1과 같이 고리 (륜)를 뛰여 넘는 강아지 모양을 너장 그리시오 (종이 규격은 정방형이 되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종이에 그려진 고리를 가위로 오려 내시오. 그리고 너 장의 그림을 ㄱ, ㄴ, ㄷ, ㄹ, 순서로 각각 길이 30cm 정도의 막대기에 그림 2와 같이 풀로 붙이시오.

노는 방법

고리를 뛰여 넘는 강아지를 그림 3과 같이 쥐고 빙글빙글 돌리면 강아지는 마치 고리를 재빨리 뛰여 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때 너무 빨리 돌린다거나 늦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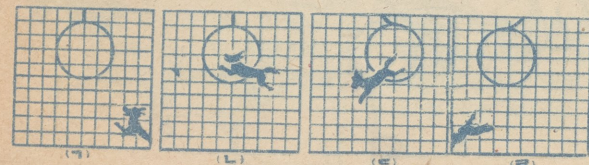
수수께끼의 해답

1) 지식입니다.
2) 그림자입니다.
3) 버선 신는 것입니다.
4) 바늘입니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 1 호 (총 147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30011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우리들의 그림 페지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집에서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함남 신포시 양화 중학교 김 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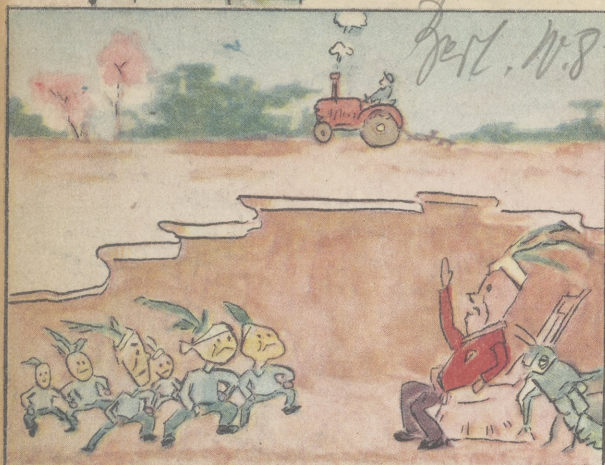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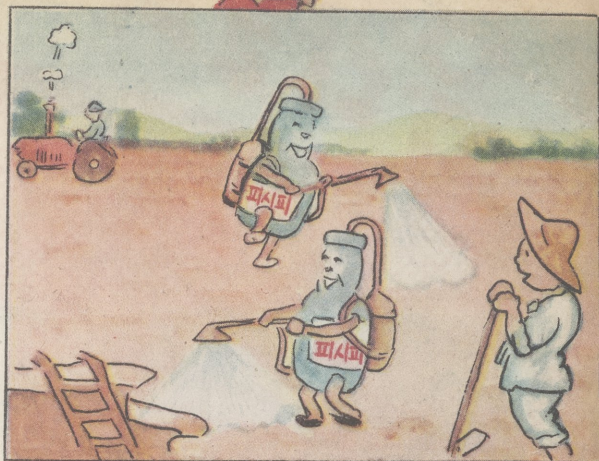
《미군 나가라!》
평남 강서군 강선 중학교 신 오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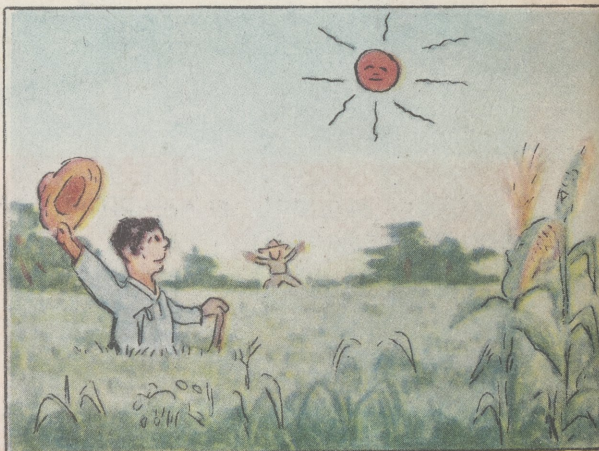
《공장 아저씨들을 찾아가 기술을 배운다.》
함흥시 본궁구역 흥덕 중학교 3학년 2반 리 병호

《얼음판 우에서》
평남 강서군 강선 중학교 신 오남

련재만화

《새 농군 부대》(1)

그림 박춘삼

① 겨울철 땅속에 깊이 박혀 잠을 자던 돌피왕은 뜨락또르 밭가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며 호령을 쳤습니다. 《저 봄 노래를 듣느냐! 빨리 서둘러 땅 밖으로 나가자!》

② 그러나 500만 톤 증산에 떨쳐 나선 농민들은 잡초들의 활동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춘경을 한 논밭에 잡초들이 못 나오도록 농약 《피시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③ 이것을 모르는 잡초들은 땅 밖으로 나오려다 몽땅 죽고 다행이 살아 남은 잡초들은 시들시들 앓기 시작했습니다. 《왕님! 큰 일 났습니다. 새 농군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④ 이 보고를 받은 돌피왕은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잡초들이 없는 논밭은 곡식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것을 본 농민은 《참 농약은 좋기도 하군!》하고 기뻐했습니다.

⑤ 벼 옥수수들이 한창 자랄 때였습니다. 돌피 왕은 시들시들 앓던 잡초를 다리고 논밭에 나타났습니다. 곡식들은 큰 일 났다고 농민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⑥ 이 소리를 들은 농민은 농약 《2.4디》라는 농약을 뿌렸습니다. 이 바람에 돌피 왕은 졸병을 다 잃어 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농민은 헐하게 농사를 잘 짓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